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83 1981년8월4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August 4.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 0 1981

캐나다 최초의 한국계은행

외환은행 인가 받아

금융계서 놀라, 불과 11개은행만 첫인가

작은 고추가 정말 매웠다. 오랫동안 토론토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은행으로서의 인가를 고대하던 외환은행토론토연락사무소는 31일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꿈에 그리던 은행인가서를 받았다. 이장우 행장은 "정확히 31일하오4시35분이었다"고 감격해서 소리쳤다. 외환은행은 이날을 위해 10여년간 인내해 왔고, 이로써 오는 10월 6일 캐나다은행으로서 당당히 개점하는 것이다. 알란·맥케켄 재무장관이 서명한 인가장은 은행허가를 신청한 50 여개 은행중 캐나다한국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 OF CANADA)등 11개 은행에 우선 발부됐다.

31일자〈월·스트릿·저널〉지 (뉴욕 발행)는 "한국외환은행이 인가를 받은 첫 11개 은행에 끼었다는 것은 무척 경이적이다" 라고 보도할 정도로 외환은행의 인가는 캐나다의 국제금융사회를 놀라게 했다

11개 은행중 극동계는 세계적인 일본의 도꾜은행과 외환은행 뿐이었다 나머지는 미국계 4 유럽계 5개이다

중국계 은행도 인가 받았으나 이번 정식인가 기회에서는 탈락됐다

내인가를 받은 12개 은행중 9개는 이미 금융회사로 이곳서 영업을 해오던 것을 단순히 은행으로 현실화시킨 의미 밖에 없으나 외환은행과 미국계 1. 독일계 1개 은행은 사무소에서 은행으로 일대비약했다는 점에서 금융계의 감탄을 자아낸 것이다

연방정부는 작년 12월1일 캐나다은행법을 개정 외국은행의 국내영업을 허가하는 길을 터놓았다

이날을 학수고대하던 외환은행이 서울본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2백페이지의 서류작성을 끝낸것은 3개월만인 2월9일 이었다

외환은행 신청서는 재무성 접수 3호였고 거의 완벽 그후 이의가 제기되거나 담당관리가 의문점을 물어오는 일이 없었다.

적은 인원으로 이같은 성과를 낸 것은 "장기간의 치밀한 준비 팀·웍등 때문이었으나 무엇보다 당시 이수신 소장과 김승성 과장등의 평소 실력, 불철주야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고 외부에서는 보고 있다

그후 이은행장 김남수 과장을 추가로 증원받은 외환은행은 4월21일 내인가를 받았다

이때가 외환은행의 이름이 캐나다및 국제금융계에서 크게 크로즈업된 때였다 1차로 내인가 받은 12개 은행에 끼었기 때문이었다

내인가후 정부는 외환은행의 설립예정을 1개월에 걸쳐 공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 공고를 또 1개월에 걸쳐 냈다

아무 이의 제기자가 없자 외환은행은 이번에 정식인가를 받은 것이다

외환은행 간부진은 허가담당 재무부 실무자들과 자주 만나 솔직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 「로비」의 전부였다고 4일 말했다

한편 은행허가를 신청한 한일은행은 8월말~9월초 내인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2캐네디안·플레이스 (아드레이드×베이·스트릿)에서 개점하는 외환은행은 행장 이장우 전무 이수신 매니저 김승성 김남수 과장등을 직원으로 하며 예금·송금·대출·수출입업무등 은행으로서의 각종역할을 담당한다

불입자본금은 500만달러이다.

앞으로는 블루어·스트릿 한인상가에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국계 은행의 출현은 한편으로 볼 때 갓성장하기 시작한 한인신용조합 내지 한인천주교 신용 조합과의 마찰 또는 경쟁관계를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교민들을 위해서는 큰 뒷받침이 되는 3번째의 한국계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社告

全美洲 교포청소년 文藝콩쿨

중고대생중심 국·영문작품 모집·표창

조국애고취내용, 장원 2명선정, 모국관광 부상

북미교포청소년의 조국애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본보는 전 미주 청소년 문예콩쿨을 주최하여 조국과의유대를 높이기로 했읍니다.

미주내의 중·고생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참여도환영하는 청소년 백일장은주미한국대사관, LA한국문화원, 뉴욕한국문화원이 후원하고 있읍니다.

이 백일장에 제출하는작품은 시사체 수필문으로서 재북미 동포사회의 애국심고취와 조국과의 일체감을 갖는 주제이면 어느 작품도 환영합니다.

작품은 한글이나 영어중 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수는 한글일 경우, 타자지 10매이내, 영문일 경우 5매이내로 하면 됩니다.

전미주 규모로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문예콩쿨참가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작품에 대해 장원, 우수상, 가작등을 선정하여 표창합 니다.

제출된 작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2명은 장원으로 선정, 문공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6박7일동안 본국 관광을 제공 합니다.

그리고 우수상 3명과 가작 수편을 선정, 상패와메달로 노력을 높이 평가 합니다.

이번 청소년문예 콩쿨에 제출한 작품은 본사에서 오는 9월30일(수)까지 마감하며 당선작 발표는 10월22일 지면을 통해 공고합니다.

미주속의 한국인이 문화민족이란 긍지를 높여주는 청소년문예콩쿨에 교포여러분의 성원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일보 각지사 접수, 9월30일마감, 10월22일 발표

한국, 이민여권 발급

미국내 불법체류자에

(서울1일=연합) 한국정부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이민여권을 발급, 이들의 미국이민을 적극 도울예정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 자국내 불법체류자에게 제한된 사면령을 발표할 채비를 하는데따른 조처이다.

미국내 한국영사관은 한국인·불법체류자의 명단을 작성중이다.

한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여권법, 병역법, 통관법등 국내법 1~2개는 위반하고 있다.

월레장관 망발

우체의존 부당

(몬트리얼) 앙드레·월레체신장관은 지난 30일 "기업인들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우체국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우체국 외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기업성장관직을겸한 월레 장관은 높은 이자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번 질문을 받자 "나는 그런 편파적인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고함쳤다.

한편 기업은 우체국외의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그의 발언은 전국의 사업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업계대표들은 그의 사임을 요구했다.

「바시티」배 새 야구대회

「바시티」배 쟁탈 제1회 야구대회(소프트볼)가 오는 9월5일(토). 6일(일)양일간 센테니얼·파크에서 열린다. 주최자 바시티·스포츠 상점의 이건영씨는 "많은 야구인들로부터 [illegible] 합 개최를 종용받았다. 전처럼 한 두번 져서 완전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리그전을 벌여 시합하는 것이므로 좀더 재미있고, 오래 시합을 즐길 수 있다. 트로피도 애뉴얼·트로피를 만들어 연3년 우승팀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많은 야구인및 동창, 교회팀들의 성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접수처는 바시티운동구점(967-7304). 신청비는 50달러.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학생시위 용납못해

서울대,학부모간담회서주장

(서울1일=연합)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서울대학교 권이혁총장은 31일 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학생들이 학원내를 소란스럽게하는 불법단체에 가입치 못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권총장은 학원내의 질서문란은 주로 몇몇학생이 주동하는 비등록 학생서클에 의해 저질러 진다고 말 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임직원들은 이날 주로 서울·경기지방에서 온 학부형약 1,300명과 최근학원소요문제 전반에 걸쳐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학부형들은 80년 7월이후 퇴학·제명된 학생의 구제를 요구했으나 대학당국자는 "분명한 답은 당장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형들은 학생들이 학원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갖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최근 구호나 행동을 국가존립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이며 학교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시위는 학원내에서도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장개석총통의 국부군(중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하이(상해) 경찰관이 2명의 정치범을 가두 처형하고 있다. 상하이가 모택동의 중공군에 함락되기 직전의 광경이다. 이 사진은 중국통인 미국인 에드가·스노우씨가 쓴 「에드가·스노우스·차이나」에 게재됐다. 스노우기자는 1928년 중국에 처음 갔었다. 랜돔·하우스 발행 284페이지로 값은 $25.9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 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어초회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 옥 녀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M5S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캐나다태권도 종합2위

월드·게임I 한국 태권도 1위

(산타클라라에서 이태은 오타와지국장)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월드·게임1에서 캐나다대표 태권도팀(단장 이병권)은 금1, 은1, 동메달 1개의 메달 3개를얻어 태권도부문 종합2위를 차지했다.

한국태권도팀은 10체급에서 9개의 금메달을 획득, 태권도부문 종합1위를차지,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과시했다.

태권도부문에는 전세계에서 14개국이 참가했다.

3위는 은2, 동3개를얻은 미국이었다.

캐나다팀의 교포선수 2명(홍혁기, 박영호)은 아깝게 예선서 탈락했다.

헤비급에 출전한 몬트리얼 이종수도장 소속 다렐·헤니간선수는 준준결승서 호주선수를 1분10초만에KO로 물리쳤고 결승에서한국선수를 격파했다.

4년간 태권도를배운 헤니간 (19)은 1년전 초단을 땄다.

미들급 은메달자 저지·롱선수는 준결승에서 아이보리·코스트선수를 물리쳤으나 결승서 한국선수에겼다.

사지·랑로아 선수는 밴탐급에서 동메달을 땄다.

◇다렐·헤니간 선수

◇이종수 사범

캐나다가 국제태권도 대회에서 메달을 딴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달입상자 3명은모두이종수도장 소속이다. 이사범(43)은 64년9월 몬트리얼에 캐나다 최초의 태권도장을 열어 그간 3백여명의 유단자를 양성했다.

7월24일서부터 2일까지 열린 비올림픽 경기종목의 제1회 월드게임1에는 세계 54개국에서 5천여 선수가 참가했다.

김성낙목사 북한방문 후회

정치적 이용당해

(LA3일=연합) 반정부인사로 알려진 김성낙 목사는 최근 북한방문에서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자기가 북한실정을 좀더 알았으면 북한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방문을 후회했다.

전 한국삼육대학장이었던 김목사는 지난 6월, 20일간 북한을 방문, 북괴수상 김일성과도 만났다고 전했다.

노령의 김목사는 북한방문은 단순히 생전에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고 한국기독교계 전문지 〈크리스챤·헤랄드〉와 가진 회견에서 말했다.

미국교수 대만서 변사

(워싱톤) 대만정부의 정보원들이 대만출신 교수 변사사건에 관련됐다고 미하원의원이 주장, FBI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만출신의 첸·웬쳉 카네지·메론대학 교수는 대만을 방문중 대만국립대학 도서관에서 화재를 만나 사망했다고 대만정부가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통계학을 가르치는 웬쳉 교수는 변사직전 13시간동안 대만정부 비밀수사기관에서 심문을 받았다. 조사원들은 그의 미국에서의 행동을 심문했다.

리치 공화당소속 하원의원은 "웬쳉 교수 변사사건은 미국에 있는 대만출신 중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FBI의 광범한 수사만이 대만정부의 또다른 비밀정보활동을 막아줄 것이다"고 말했다.

웬쳉 교수의 친구들은 그가 죽기 전에 반정부 잡지를 위한 기금을 모금했 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증언에 나선 카네지·메론대학 리챠드·셧 총장은 "대만정부 정보원들이 미국 각대학에 스며들어 대만학생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 해왔다"고 말했다

주말에 올스타전

피터·로즈, 새안타기록기대

(크리브랜드=오하이오) 오랜파업을 끝낸미국 프로야구는 시즌중반의 행사 올스타전을 위한 라인업을 구성했다. 금년에는 파업으로 취소될번했던 52회 올스타 경기는 9일이곳 크리브랜드에서 내쇼날·리그와 아메리칸·리그 대표팀이나와 단일경기로 승부를 가린다.

스탠드·뮤지엄의 3,630개 미국 프로야구 안타기록과 동점을 이루는 안타를 야구선수 파업전날에기록했던 필라델피아 피터·로즈선수는 1루수로 출전, 3,631번째 프로야구 신기록 안타가 기대된다.

약 3백만명 야구팬의 투표로 이루어진 내쇼날·리그 올스타와 아메리칸·리그 올스타의 투수진을 제외한 스타팅·멤버는 아래와 같다.

토론토·브루제이스는 베스트 멤버에는 한명도없고 몬트리얼의 게리·카터와 앙드레 다우슨은 베스트 9으로 출전한다. '베스트 9은 반드시 스타팅멤버로 출전해야한다.

◇내쇼날·리그 (투수제외한 베스트9)

포 수:
게리·카터(몬트리얼)

1루수:
피터·로즈(필라델피아)

2루수:
다베이·로페스(LA다저스)

3루수:
마이크·슈미츠(필라델피아)

숏스톱:
데이브·컨셉시온(신시내티)

외야수:
앙드레·다우슨(몬트리얼)
데이브·피커(피츠버그)
죠지·휘스터(신시내티)

◇아메리칸·리그

포 수:
칼튼·휘스크(시카고·화이트삭스)

1루수:
로드·캐뉴 (캘리포니아·앤젤스)

2루수:
윌리·랜돌(뉴욕·양키스)

3루수:
죠지·브렛(캔사스시티)

숏스톱:
버크·덴트(뉴욕·양키스)

외야수:
데이브·윈필드(〃)
레기·잭슨(〃)
켄·싱글톤(볼티모아)

미하원, 이자율 인하 권고

고금리 정책 비난

미국하원은 치솟는 미국의 고금리정책이 미국및 자유우방국의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 레이건대통령에게 이자율을 낮출것을 요구했다.

미하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오타와에서 있은 7국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6개 국수상들이 미국고금리정책을 비난한 것과 때를 맞춘 것이다.

403:17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고금리정책이 국가재정적자와 인프레이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긴축통화책을 과신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디스코의 여왕 도나·섬머가 다시 스테이지에 선다.

디스코의 여왕 도나·섬머 컴백

(로스엔젤레스)1년 이상 스테이지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디스코의여왕 도나·섬머양이 다시 무대로 복귀, 3일부터 미국 순회공연에 올랐다.

"Bad girls"등 수많은히트곡이 그녀가 없는동안전세계 가요계를 휩쓸었다.

그간 아이를낳은 도나양은 "고독을 배웠어요. 이제 더이상 미친짓은 안하겠어요. 남편과 아기를 보살피며 평범한 주부처럼 살겠어요."라고 가요계 컴백소감을 말한다.

그녀의 이번공연은 미국동부에서 시작,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8월중순에 끝이 난다. 이번 공연에는 남편과 아기가 따라다닌다.

남편 수다노는 가수이자 작곡가이다.

프로필

◇프랑스의 여우 브리짓·바르도(BB)는 50세가 되가지만 아직도 20년간 전세계의 섹스심볼 역할을 하게한 육체미를 잃지 않고 있다. 위[illegible] 반라의 비키니를 입은 바르도가 프랑스 남부 리비에라 해변에서 애견과 함께 태양을 즐기고 있다. 원내는 새 보이·프렌드 알란·뒤버 L(왼쪽세작가). 바르도는 동물애호가임을 과시하듯 고양이 20마리, 오리 50마리, 개 6마리, 기타 염소와 돼지를 기르고 있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FAR FROM IT.

우리말에 「~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표현이있다。이것을 미국인들은 글자그대로 Far from it.이라고 한다。

「노래를 참 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I hear you're a good singer. 이같이 물어오는 상대에게 「노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음치입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Far from it. I can't carry a tune. 이같이 할수있다。can't carry a tune이란 음률을 따라 할수 없다는 뜻이므로, tone-deaf(음치)와 같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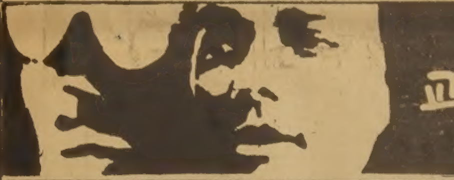
또한, 「술을 많이 마신다고 들었는데요」 I hear you drink a lot. 이같이 했을때도 「술하고는 거리가멉니다。술은 입에 대지도않는데요」라고 대답할시는 Far from it. I don't touch liquor. 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는 beyond를 사용한 표현이 있다。Can you cook?(요리를 할 줄 아세요?) 이러한 물음에 beyond를 사용해 대답해본다면 No, I'm afraid cooking is beyond me.(아니오, 요리하고는 거리가멉니다) 이같이 한다。

A: Can you help me with my German homework? You're a genius.
B: Far from it, but I'll try to help you. What's your problem?
A: I get mixed up with the irregular verbs.
B: You simply have to memorize them.
A: I know, but for some reason, I just can't keep them straight in my mind.
B: O.K. Sit down and I'll go over them with you.
A: 내 독일어 숙제 좀 도와 주겠니? 너는 천재아냐。
B: 천재하고는 거리가멀지만 한번 해보지。뭐가 문제지?
A: 불규칙동사들이 혼동되는구나。
B: 그건단순히암기하는수밖에없지。
A: 암기해야된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왠지 머리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구나。
B: 좋아앉아서함께한번해보자꾸나。

※genius: 천재。get mixed up: ~와 혼동되다。for some reason: 무슨 연유인지 모르게, 어쩐지. (예) For some reason, I just don't feel like going. (어쩐지가고 싶지가않군요). go over: 복습하다。

【한국일보 시카고支社 제공】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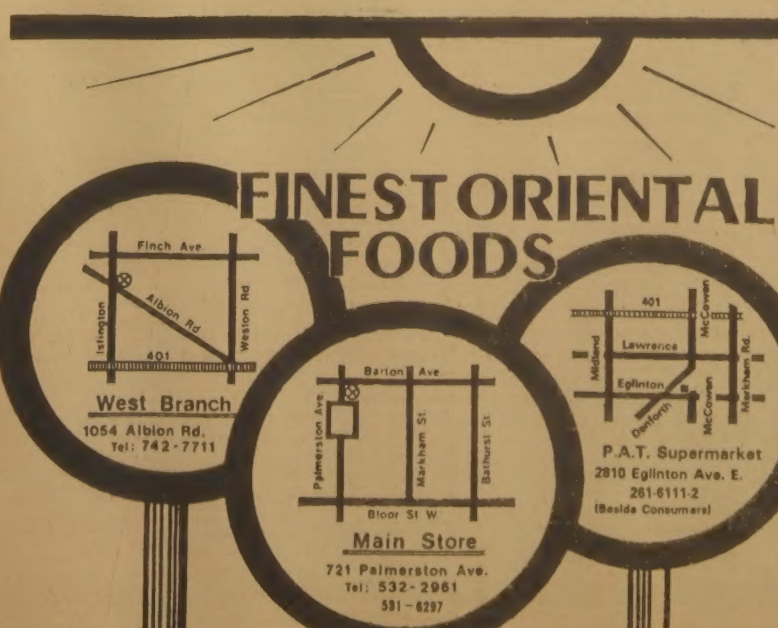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09

CANADIAN & ORIENTAL FOOD

한국식품



서부지점 ☎ 742-7711 동부지점 ☎ 261-6111

본점 ☎ 532-2961

신선한 품질, 다양한 품목 신속하고 정확한
써어비스는 한국식품의 자랑 입니다.

- 7월에 생산된 미국산 삿보로라면 24개 Box $9.95
- 6월에 생산된 일본산 삿보로라면 30개 Box $11.75
- 일본산 점보다꽝 17oz. pk $1.99
- 산요(일제보온밥통) $1 29+TAX
- COCA COLA 24 CANS $4.99
- CALROSE 쌀20kg $19.99

※ 라면에는 항상 생산일자를 체크하세요.

개점시간: 동부-월, 화, 수 오전 9시-오후10시
목, 금, 토 오전 9시-자정까지
〈일요일 휴업〉
본점-오전 9시30분-오후10시
〈화요일 휴업〉
서부-오전10시-오후10시
〈화요일 휴업〉

〈알림〉 9월7일 노동절은 온타리오 노동법규상
동부지점에 한하여 close 합니다.

<건강생활 시리즈>

건강의 비결 ⑤

튼빌약국 이 요 한

그러므로 체중을 조절하려면 필요이상의 음식섭취를 줄이거나, 운동이나 노동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저축과 소비가 맞으면항상 체중은 적당하게 유지될수 있는것이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영양가 섭취량을 줄이는것도 중요하지만그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나 노동으로 칼로리의 소비량을 증가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백인들이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식욕억제를 하며 약국에와서 항상하는 이야기는 하루한번 식사를 하는데도 체중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하루 한번밖에 식사는 안하지만 섭취하는영양가는 자기가 소비하는것보다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운동이나 노동을 안한다는 것이다.

약국에 가면 각종 체중조절용 약품이나 각종 제품을 처방없이 판매하고있으나 이런것들이 얼마나효과가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 역시 추천하고싶은 생각은 없고, 처방에 의해살수있는 식욕억제제나 신진대사 촉진제도 있으나 특수경우를 제외하곤 좋은방법은 아니다. 다만 음식물조절을 하는방법이 가장좋다.

비만증(Obesity)은 일종의 질병으로 필요로하는체중을 20% 초과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비만증은 여성에게 많으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이 고소득층 여성보다 7배나 더 많다.

비만증은 왜 해로운가?

보험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뚱뚱한 사람의 수명이 훨씬 짧은것으로 나와있으며, 주로 심장병으로 일찍 죽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만증인 사람은 반드시 고혈압은 아니지만 고혈압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지방의 축적이 고혈압의원인이 된다는 확증은 아직 없으나 고혈압이 많게되니 뇌일혈(Stroke)이나 심장마비의 확률도 많다는 결론이다.

또한가지 더 확실한 것은 당뇨병이 많다는 것이다. 40세 이후 발병한 당뇨병 환자중 85%가 비만증을 갖고있다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허리병등 비만증은 많은 건강에 불리한 점이 많으나 이상의 설명만으로도 왜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가를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생략한다.

8. 식품첨가제는 건강에 해로운가?

우리가 먹는 식품중에는 많은 식품첨가제들이 들어있다. 방부제, 색소, 안정제, 표백제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들 화학약품들은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식품첨가제중에는 장기간 먹어도 안전한 것도 있으나 많은 것들이 단기간 시험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되어 허가된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카린이나 뉴슈거(슈카릴)이 한 예이다. 많은 양을 먹으면 암의 원인이 된다고 모든 식품이나 약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안전하다고 하는 약품들도 언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나라마다 또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돼도 캐나다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현상은 의약품으로 말하자면 수없이 많다.

커피(카페인)가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만 담배와 마찬가지로 커피의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을것 같다. 커피의 암발생문제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가능한한 식품첨가제가 들어있는 식품은 제거해야 한다. 각종식품회사에서 포장할 때 반드시 첨가제를 명시하게 되어 있으니 사기전에 꼭 확인하고 사는게 현명하다.

각종드링크·과자류·캐라멜·마가린·소세지등 식품첨가제가 들어있지 않는것이 없다. 탱가루는 안먹고 대신 100% pure오렌지쥬스를 먹을 수 있지만 밀가루에도 표백제가 들어있는데는 정말 어쩔 수 없다. 국수를 좋아하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설탕은 비만증의 원인이 되고, 충치의 원인이 된다. 소금은, 즉 짜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고혈압이 된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소금은 체내의 수분을 유지하므로 고혈압인 사람이나 심장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실험에 의하면 쥐의 경우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9. 결 론

우리가 건강하게 일생을 살기 위하여서는 보다 과학적인 식생활과 생활방식을 가져야 한다.

다음에 몇가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점을 생각해 보자.

①건강에 좋은 음식=생선류, 새우, 게, 조개류, 스킴밀크, 콩나물, 콩류, 야채류, 버섯, 무우, 양파, 땅콩, 각종씨앗, 마늘, 과일류, 쌀, 밀눈(wheat germ), 요구르트, 천연치스, 꿀, 우유, 효모등등.

② 음식의 양은 적게(2000칼로리 이내) 그러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것. 단백질은 세포성장과 재생에 필요하다.

③ 아침을 꼭 먹을 것. 저녁 먹고나서 다음날 아침까지는 12시간 이상 fasting이니 break해야 한다(breakfast·아침식사의 근원).

아침식사가 하루 식사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생각하라.

④하루 3번 식사를 하되 반드시 제시간에 할 것.

⑤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씹어 먹을 것.

⑥매일 야채·과일·스킴밀크·생선등 골고루 먹을 것.

⑦종합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할 것. Natural((천연산)이 다만 값이 비쌀 뿐이니 합성비타민도 작용은 같다.

⑧적어도 하루에 10분동안 운동을 할 것. 전기운동이나 계단 오르는 것도 좋다.

⑨담배를 피우지 말 것.

⑩술은 안하거나 적당히 할 것.

⑪체중은 적당히 유지할 것.

⑫하루에 7~8시간 반드시 잠을 잘 것.

⑬간식은 하지 말고, 잠자기 3시간전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말 것. 비만증이 되지 쉽다.

고기류(meat)를 많이 먹지 말 것(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일 것).

—(끝)—

교 민 동 정

◆정용=차남 수광군의결혼식을 1일하오 헤리티지·인(385렉스데일·불러바드)에서 가졌다. 자부는 이춘길씨의 막내 선희양. 주례는 북미순회법회중 불광사에들른 경남해인사의 율타(일타)스님이었다.

◆천영순(화가)=화실을 1일부털 100리치몬드·이스트에서 362A 킹·스트릿·이스트로 옮겼다. 전화는 전과같은 368-1597.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
CITY.T.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㊱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옮김

바렌을 가로지르는 강이 몇주전만 해도 물이넘쳐흘렀지만 이제는 조그만 냇물로 변하여 바위들이 들쑥날쑥해서 카누로는 여행을 할수가 없게되었다.

우리가 가려고하는 쪽으로는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수로의 여행은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할미우트 인디언들이 잘쓰는 육로밖에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기로 했다. 차이 가 있는것은 이할미우트는 여행을 가볍게한다.

여름철에 여행할때 칼한자루와 담배 파이프 그리고 카릭이라는 여벌의 가죽장화를 메고 다닌다. 가다가 먹을것이 생기면 아무것이나 먹고, 메마른 웅덩이를 만나면 써커(물고기)가 많아서 손으로도 잡을수가 있다. 혹은 써커가 없으면 긴사슴 동가죽을가지고 다니다가 모래둥성이에서 다람쥐 덫을놓아 잡아먹곤 한다.

이른 여름철이되면 어디가나 새알이 많고, 또 알을좋은 새는잘 도망가지않는다. 그리고 새알이 거의 부화될 시기가 된것이면더욱 맛있는 식량이 된다.

프란쯔와 나는 그반대로 백인들이 하는대로 준비를 했다.

우리는 5마리의 개를 데리고 갔는데 개마다 짐을 지우고 또 두개의 긴줄을 묶어서 뒤에는 1휘트평방의 썰매에다 야전용 침랑, 실탄, 식사도구, 에스키모들에게 선사할 밀가루와 담배등 거의 30파운드에 해당하는 짐을싣고 갔다. 이 짐 외에도 우리각자는 자온천막 한개와 우리들이먹을 밀가루, 차등을 꾸려가지고 갔다.

개에게 짐을 지우고가는 60여 마일의 여정이 이할미우트 인디언은 이틀밤낮이면 될것을 일주일이더 걸렸다.

나는이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햇볕이 쬐는 기간은 온도가 열대지방처럼 혹심하다.

우리는 파리때문에 스웨터와 사슴가죽 자켓을 꼭 입고 있어야했다.

우리가 지나가면 이끼에 앉아있다가 떼를지어 무섭게 달려드는데 마치 낮게 뜬 구름처럼 보인다.

밀루기아(블랙 훌라이)와 킹토리악(모기)떼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했고, 바렌은 텅 빈채로 사방으로 뻗혀서 전혀 피할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잠시쉬며 식사를 한다는것은 말할수없이 고통스러운 일인데다가 무섭게 쪄는데 온도는 더욱 참을수가 없었다. 더이상 참지못하고 미칠것같아 모든것을 다 팽개치고 녹초가 될때까지 아무데나 막 뛰고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개들은 잘 참아 주었고 또 우리는 어쩔도리없이견더내야 했으며, 비오듯한땀은 모기들을 더 신나게 만들 뿐이었다.

귀밑과 턱밑에서는 파리에물려 핏방울이 계속떨어져 옷에젖어 들었고, 견디다못해 검정목도리를 목에 둘렀는데도 파리들은 계속해서 덤벼들었다. 파리는 옷을뚫고 혁대를 맨곳까지 와서 멈춰서는 피를빨다죽어서 말라 버린 피때문에옷이 달라 붙었다.

우리가 지나가는곳은 혹심한 파리떼를 피할수있는 편한길이 전혀 없었다. 판판한 지형이었지만 맞은편쪽으로는 뾰족한 바위와둥성이, 둥성이 사이는 잡다한 돌과바위로 채워진 낮은구릉이 연연히 흐르고있었다.

이 험한지형을 지나면서 가죽장화는 찢어지고 헐어서 발이부르터 더이상 걸음을 옮길수 없도록 고통스러워 졌다. 그래도 이계곡사이에 놓여있는 물이고인땅을 걷는것 보다는 훨씬 수월했다.

매 골짜기마다 가운데로 흐르는 작은 도랑이 있었다. 어떤것은 5피트 넓이도 채 안되는 것도 있었는데, 물의깊이는 5피트 가량이 되었다.

골짜기밑은 계속되는 젖은 이끼로 덮여서 무릎까지 올라왔고, 밑에는 녹지않는 얼음으로 묻혀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수정과 헤아릴수없는 도랑을 건너고 또 작은 웅덩이를 우회하는동안 허리밑으로는 얼어서 감각이없고, 허리위로는 비오듯한 땀으로 흠뻑젖어버렸다. 게다가 온 사흘동안 비가와서 수없는시궁창을 건너면서 물귀신이 되어버리는 악몽을 참아야했다.

그때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여름에 여행하는상황을 설명하려는것이 아니고 다만 이할미우트 인디언들이 이런상황에도 얼마나 잘 여행하는지를 설명하고싶기 때문이다.

이험한 60여마일의 거리를 그들은 아주쉽게 불편없이 이틀 미만이면 여행할수 있다. 그들은 다만얇은 사슴가죽으로된 신발을 신고 다닌다. 그들이 특별히 불편함을 못느껴서가아니라 다만 그들이 겪지않으면 안될 상황에 육체적으로 잘 적응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형의 장벽을우리가 하는것 처럼 바꿔놓으려고 하지않고 다만 거기에 잘 적응해 왔다.

(계속)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토식 중국유식, 비빔밥,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비어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디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월~토 9:30AM~6:00PM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
●월~토 11AM~7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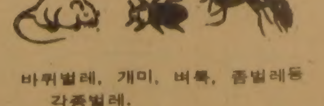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그 래 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 도서(책지)·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헌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는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배수.
☎ : 255-6849, 255-071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 - 30 달러
☎ : 532-3637 미스타 계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입주하셔서 애들(2명) 봐주실분
가게 : 1-723-8632(오후5시까지)
집 : 1-571-0725(오후5시이후)
(콜랙·컬로 전화하십시요) MRS. 홍

룸·메이트 구함 : 여성에 한함
베더스트×듀폰
☎ : 531-5200 미스. 유(오후6시이후 연락)

급 구
주방헬퍼구함 628 BLOOR ST. W.
☎ : 536-0290
한 국 관

PHOTO SHOP에서 일하실 풀타임 구함
REXDALE지역
☎ : 486-6455

캐네디언 식당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미혼여성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 : 362-3170 미스타 또는 미세스 리

일본식당 부엌에서 일하실분 구함
(오후3시~5시 사이)
☎ : 924-7501 459 CHURCH ST.
MICHI JAPANESE RESTAURANT

스토아 헬퍼 구함
●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 과일및 뒷일 해주실 분으로
VAN트럭이나 대형 왜건 가지신분 구함.
월수입 $1500.
☎ : 624-5817

급 구
20세에서 35세, 영어하실 수 있는
웨이트레스 구함
☎ : 224-1060, 221-1507

①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우대 좋은장소
1000마리당 $35
②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데리
A & A METRO BAIT SHOP
630 QUEEN ST. E. (Queen × Broadview)
☎ : 463-4997

매매및 양도

타운하우스 매매 : 4 베드룸, 가격 : ₩62,500.
(DON MILLS × FINCH)
☎ : 491-3825, 27 SLENDER FERNWAY

성업중인 가게급매 : 주매상 $5000, 리스5년+5년
옵션, 렌트 $400, 가격 $27000+스탁
☎ : 766-1990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매 매〉
"가정 형편상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528 더프린 스트리트〈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 531-416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가게급매 : 주매상 $4000~$4500보장, 렌트 월 $600
(1 베드룸 포함), 리스2년+4년 옵션, 가장 적당한 오퍼
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브람리 하드웨어 비즈네스 매매
크기 : 1800sq. ft. 리스 : 긴 기간 다운페이먼트 :
$10,000, 장소 : 우수함.
주위에 경쟁할 가게 없고 새집들이 매일
들어서는 지역
연락처 : 630-5353 FRANK PERRONE
BELSTAR REALITY LTD.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All Languages Service
"Helping People to Communicate"
ALS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over 70 Languages
French for the Quebec Market
Suite 1105, 67 Yonge St., Toronto, Ont. M5E 1J8 361-0303

식품점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피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RLANTS * 꽃꽂이, 생일,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5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음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사무실 렌트

가게렌트 : 부촌안에 있는 프라자 BURN KING,
BAKERY DELICATESSEN 또는 COIN LAUNDRY
좋은 장소임 1600~2600 sq. ft.(싼렌트)
531 WEDGEWOOD DR. BURLINGTON
☎ : 844-3151, 844-0121

세놓음 : 2 베드룸 베이스맨트
WARDEN×LAWRENCE
☎ : 751-9286

533-2361-4
1025 Dupont St.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저 밖에 나가요, 아빠" "잠깐만 게야"
"언젠가는 내것 모두가 네것이 된다는걸 넌 알고있지?"
"너는 잔디밭이 더러운 집을 상속받고 싶지는 않을거야, 그렇지?"
"아빠는 날 잔디깍게 만드는데 천가지하고도 한가지 방법을 더 가졌어"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流星의 賦 <14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㉜

미때의 선조의 교문(敎文)—
—간사한 자들이 벼슬자리에 있어 조정이 깨끗하지 못하고, 범궁이 혼란을 옮게 방하지 못해서 국시(國是)를 어지럽혔다. 이에 이자들을 멀리 내쫓아 길이 후세의 본 보기를 삼으려 한다. 박근원, 송응개, 허봉등 간사한 천성으로 조그마한 재주를 가지고 부박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사사로이 당파를 만들고 서로 끌어 들여서 요직을 차지하였는데, 왕명을 출납하는 자리를 더럽히고, 혹은 대간(臺諫)과 시종하는 벼슬을 차지하고서, 성세(聲勢)를 떠벌이고, 사설(邪說)을 선동하여, 권세(權勢)을 마음대로 희롱하고 조정을 협박, 견제하여 대신(大臣)을 모함하며, 충선되고 어진 인물을 배척, 제거하여 파당을 지은 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니 기막힌 일이다. 모든 사실을 숨기고 말을 함부로 지껄여 흉심스럽고 어진 사람을 누르고 꺾었으니 악의 탁란(濁亂)이 극도에 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인배(小人輩)가 뜻을 얻어 나라를 그르쳤으니 그 죄는 용서 받을 수가 없다. 이는 인근(隣近)이 다 아는 일이고 조야(朝野)가 함께 분한을 참지 못하는 일이니 장마당에서 목을 베어도 되리 자대하다고 할 것이어늘 특히 가벼운 형을 시행한다』

이어 그들의 일당들을 외직으로 내보내는데 이기를 상흥부사로 하고, 박승임(朴承任)을 창원부사로하고 김응남(金應南)을 제주목사로 임명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대사간 김우웅이 선두가 되어 귀양갈 세사람을 옹호하고 정철을 탄핵하고 김응남을 두

……는 상소를 올렸다. 김우옹은 어찌기 이이가 신임하던 사람이고 그 역시 이이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금번의 상소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잇따라 수찬 김홍민(修撰 金弘敏)이 이이, 성혼, 박순등이 편당(偏黨)을 만들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대해 임금은

『이 상소는 삼사(三司)의 계사(啓辭)를 그대로 옮겨 쓴 것 뿐이고, 김홍민이란 자는 낭료(郎僚)로서 사당(邪黨)의 무리이니 그들의 말인즉 괴이할 것도 없다. 그는 이이가 편당을 만든다고까지 말했는데 그따위 말에 내 마음이 동요될 까닭이 없다. 진실로 군자라면 그들이 당을 만든데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당이 작은 것을 걱정해야 할 일이다. 나도 주자(朱子)의 말을 본받아서 이이와 성혼이 당에 참가하길 원하겠다. 지금 이후로 나를 이이·성혼의 당이라고 해도 좋다. 만일 이이와 성혼을 훼방하고 배척하는 자가 이후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죄를 주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이이에 대한 선조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인신(人臣)으로서 그 이상의 영광이 있을수가 없다. 판돈영(判敦寧) 자리에 있던 이이가 마주에서 사직 상소를 올렸을 때 임금이 답한 내용은 그 구구절절이 감동적이다.

『하늘이 우리 나라를 태평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가. 어찌 경 같은 위인(偉人)으로 하여금 때를 얻지 못하게 하는가. 생각대 하늘이 경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도우게 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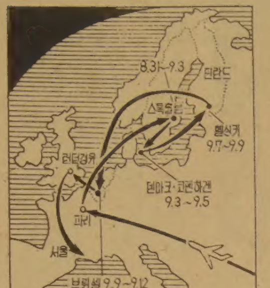
CENTRAL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南총리 유럽4個國 巡訪
이달 31일出國 EC도들러
스웨덴·덴마크·핀란드·벨기에 政治·經濟협력強化등 協議

南悳祐국무총리는 오는8월31일부터·9월12일까지 사이에 스웨덴、덴마크、핀란드、벨기에등 유럽4개국과 EC(歐洲共同體)를 공식방문한다。南총리는 巡訪기간동안 이들유럽4개국및 EC지도자들과 상호관심사、최근의 국제정세및 지역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李揆錫총리비서실장이 31일 발표했다。南총리부인 崔蕙淑여사도 동행하는 이번 순방에는 李範錫국토통일원장관과 金東輝외무부차관 李실장이 공식수행하며 姜信祚경제기획원경제협력차관보 車秀明상공부중공업차관보 丁道榮총리의전비서관 金恒經총리의전담당관등 5명도 수행한다。

◇南悳祐국무총리



南총리는 스웨덴의 칼·구스타프국왕、덴마크의 마르그레테여왕、핀란드의 케코넨대통령、벨기에의 보드왱국왕을 방문하며 스웨덴의 올로브 폴딘수상、덴마크의 요르겐센수상、핀란드의 코이비스토수상、벨기에의 아이스켄스수상과 수뇌회담을 가질예정이다。

南총리는 또 EC를 방문、가스톤·돈 執行위원장과 회담、韓國·EC간의경제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南총리의 이번 유럽4개국과 EC巡訪에 대해 李실장은 全斗煥 대통령의 미국방문、아세안순방으로 국제적인지위가 향상된데 발맞춰 南총리 일행이 정부고위당국자로선 이제껏 공식방문한적이 없는 北歐3국과 벨기에、EC를 방문、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국과의경제관계를 증진시키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南총리일행은 오는8월28일 서울을 떠나 항공편사정때문에 프랑스에寄着、31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向發、공식방문을시작하게된다。

南총리는 9월14일 런던을 떠나9월15일 귀국하게된다。

巡訪日程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8월31일~9월3일(3泊4日)
▲덴마크＝9월3일~9월7일(4泊5日)
▲핀란드＝9월7일~9월9일(2泊3日)
▲벨기에·EC＝9월9일~9월12일(3泊4日)

西方頂上會談 美국무성 柳大사에 설명

라시 美국무성 경제담당차관은 지난27일(현지시간) 柳炳賢駐美대사를 국무성으로 초청、오타와에서열린 西方7개국 頂上회담의 결과를 설명했다고 駐美대사관이 31일 외무부에 보고해왔다。

라시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결과를 설명하는것은 韓美관계가 긴밀하고 중요하기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오타와 회담에서 거론된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炭田 공동開發
現代·三星등4개업체 現地탄광사와 假契約
20~30億톤 埋藏추정

美알래스카州 버링리버(Bering River)炭田을 現代三星·三陟炭座 大成炭座등우리나라 대표적인 종합상사와 탄광업체 가 공동으로개발한다。3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들국내 4개업체는 무연탄 발루연탄및 유연탄등 석탄이 20억내지 30억톤이 매장되어 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는 알래스카 중남부지역에 위치한 버링리버탄전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3월 원주민회사인 CNI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가계약을 맺었으며 빠르면8월중에 본계약이 체결될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개사 대표들은 본계약 체결절차를밟기위해 현재 알래스카에 체류중이다。

합작법인의 자본금은 7만6천달러로 국내 4개사가7만5천달러、CNI가 1천달러를 拂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자부는 지난 20일께 버링 리버탄전 개발사업 허가신청을 승인했다。

관계소식통은 三陟炭座 現代綜合商事등이 각각 연초 이지역에대한 지질조사를 끝내고 개발할 계획을 세웠으나 규모가 방대、三星物産및 大成炭座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국내4社는 9월말까지 시추、연말까지 자료분석、경제성이 있으면 개발에착수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85년까지 다른지역에 대한 탐사를 계속할계획이다。

워커 새美大使 어제하오 부임

◇워커駐韓美대사

리처드·워커 신임駐韓美대사가 31일하오 7시30분 KAL편으로 金浦공항着、부임했다。

社會漫評

「武器휴대」 검토중…

固定間諜團 7명검거
安全企劃部발표
珍島거점 24년간 활동

국가안전기획부는 31일 전남珍島를 무대로 지난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해온 朴東運(36·농협珍島郡지부[illegible])등 7명을검거、이중5명을 구속송치하고 2명을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해방직후부터 남로당원으로활동하다 6·25때 서울에서 우익인사들을 학살한후 북괴의용군에입대、월북한 珍島출신 朴泳俊(60·재북)에 포섭돼 각각 군부처및주거지를 중심으로 국가기밀을 탐지、북괴에 보고하는한편 친북계를 조직하는등 지하조직망을 구축해왔다는것。

안전기획부는 「최근 드러나고있는 일련의 북괴대남동향은 무장공비의 계속적인침투를 비롯、각종도발을 격화시키면서 해외에서는 모략선전을 펴고있다」고 지적、「종래의 대남적화전략 방향을 재조정하여 용공적인 소위 민주연합정권을 세우기위해 각계각층이 반정부연합투쟁을 벌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고정간첩들의 범죄내용은 다음과 같다。

▲朴東運＝재북간첩인 아버지朴泳俊에게 포섭되어 65년5월14일과 71년10월3일 두차례 입북、북괴노동당에입당했다。불만학생들을 포섭、제2의 4·19를유발하고 부락유지및 공무원들을 포섭、지하망을 구축하라는 지령에 따라 72년6월 농협珍島郡지부에 취직한후 수집한 국가기밀을 암호전문등으로 북괴에 보고했다。

▲朴京俊(48·전珍島郡古郡面부면장)＝간첩으로 남파됐던 형 朴泳俊을 지난63년과 71년 2회에걸쳐 접선하고 金日成전집등 불온책자 20여권을받은뒤 珍島郡 지방행정현황·경찰및예비군현황·정보기관원들의 사찰방법등 국가기밀을 북괴에보고했다。장고계·동갑계등 친목계로 지하망을 확대하는한편 80년5월 光州사태가 발생하자 신병을핑계로順天에잠입、사태상황을 일지로작성、보관하고있었으며 李正仁사건이 보도되자 가족회의를 열어 법망극복및 옥중투쟁방법을 교양했다。

▲李守禮(57·사채놀이)＝57년5월부터 76년10월까지 북괴에서 남파된 남편朴泳俊을 4회에 걸쳐 접선、珍島해안 경비초소현황、농촌주민생활실태、현지·비행장 설립상황등을 보고하고 장남朴東運을그의 아버지 朴泳俊과 함께 월북케 했으며 시동생 朴京俊、작은아들 朴根洪의 간첩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다。

▲朴根洪(34·水原연초제조창근무)＝77년7월 근무지에서 수집한 경기도내 교도소및 주요시설현황、水原비행장의 괜턴기 이착륙 상황、3군사령부및 미군부대의 위치와 임무등 국가기밀을 보고했다。

▲許炫(43·朴泳俊의 매제)·朴美心(39·許炫의처·불구속)·韓昭子(41·朴京俊의처·불구속)＝이들은 朴東運·朴京俊·李守禮등이 간첩활동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과 회합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地下工作경계당부

한편 안전기획부는 최근 북괴는 제5공화국이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국제적지지가 확고해지자 초조감을감추지못하고、우리의 안정을 저해하기위해 무장공비를계속침투시키고 해외에서는 모략을 일삼고있다。북괴는 공산혁명을 선동하기에앞서 용공적인「민주연합정권」을세우기위해 광분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지하당공작을 경계해야 된다고 밝혔다。

비자없이 入國가능
오늘부터 日人제외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입국제도를 대폭 개선、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관광진흥을 위한 입국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일본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입국사증이 없어도 15일까지 기항지 상륙허가 「노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15일로 돼있는 일본인에대한 관광사증허가기간을 30일로 연장했다。

또 해외공관에서 관광사증을 발급받을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거주지 관할구역내에서만 받던 것을 관할구역내의 거주여부를불문하고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발급받을수 있도록했다。

올들어 지난28일까지 입국한 외국인관광객수는 모두61만4천6백63명으로작년동기에비해9·5%가 증가했다。

◇일식이 절정에 달한순간 서울지방에서 관측된 태양의모습。표면의 절반이상이 달그림자에 가려져있다。아래보이는 건물은 一山소재 延世大천문대돔。【31일낮12시48분NIKON카메라 800㎜렌즈 ND필터PL USX필름사용 權周勳기자찍음】

전국서 部分日食 목격
어제낮、다음은 54年뒤에

31일 상오11시23분(서울) 부터 2시간43분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부분일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서울지방에서 관측된 태양은 상오11시23분께부터 동쪽윗부분부터 달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시작、낮12시46분께 절정에 달해 태양표면의 53·3%가 가려졌다。

이날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려진 태양을 관측할수있었던 지방은 江陵일대로 태양의 55·4%가 달그림자에 잠식되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濟州지방으로 41%였다。이번 일식은 소련의 흑해지방에서 하와이군도를 일직선으로 잇는 폭 1백8㎞의 중심지대에서는 50초~2분2초동안 완전히 태양이 가려지는 개기일식으로 나타났으나 중심부에서 2천㎞이상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일식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국적으로 날씨가 쾌청하여 뚜렷한 일식현상을 관측할수있었으나 영남、호남일부지방은 구름이 끼어 일식을 볼수없었다。

다음번 부분일식은 54년후인 서기2035년에 다시 나타난다고 천문대는 밝혔다。

野이미지 定立
民韓議總 批判정책政黨 다짐

民韓黨은 31일상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열고 黨의운영방안과 국회대책등을 논의、제1야당으로서의 이미지정립을위한 노력을계속하고 9월정기국회에서 批判정책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議總은 이러한 결의에따라 이날 ▲民韓黨소속 82명의의원은 진정한 민주주의의구현이 국민이 우리에게부여한엄숙한 사명임을재확인하고 일치단결하여 국회의 정상운영을위해 총력을 경주한다▲우리는 1백8회임시국회가 [illegible]散된것이 총무회담합의를이행치않은與黨측에있음을거듭확인하고與黨이국회기능강화를위해진지한자세를갖기를촉구한다▲불편부당하고비합리적인 여러법령의 改廢를위해 최대의 力量을 집중시킨다▲9월정기국회에서 서민대중의 고통을덜어주는데 앞장서고 국민누구나 인간다운생활을 영위할수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다한다는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총에서 柳致松총재는 자신의 中南美순방성과를 보고한뒤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黨內일부잡음은 국가를 걱정하고 黨의 발전을 위하여서 나온것으로 안다」며 黨의 단합을 당부했다。

辛相佑사무총장은 보고를 통해 『일단 평화적 정권교체가 규정되고있는 현재 우리는 否定이아닌 肯定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議總에서 金在暎、金炳午、李炯培、洪思德、徐錫宰、李興鎔의원등 少壯의원들은 ▲黨內민주화와 단합을 위한 黨지도부의 솔선수범방안 ▲지도부의 지도노선방향 ▲미흡한 원내대책수립방안▲黨論및 정책입안과정에서 初選의원들의 참여방법등을 따지고 자주 議總을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것을 촉구했다。

地平線

법에 무슨색깔이 있을까마는、미국에는「푸른 법」(블루·로)이 살아있다。여기「블루」는「도덕적으로 서슬이 푸르다」는 뜻이나、청교도 시절부터 내려오는 일요일의 음주·오락금지규정등이 그렇게「푸르다」는 것。종교가 퇴색한 사회에서 그 실효야 뻔한것이지만、法典에 남아있으니、법은 법이다。▼이런 것말고도 미국 각주의 법규는 희한한것이 많다。청교도의 본고장 매사추세츠州에가면 교회에서 땅콩을 못먹는다。미네소타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속옷빨래를 함께 널지 못한다。볼티모 시내 극장에는 사자를 데리고 들어 갈수 없다。갸우뚱 해지는 법규정들이지만、어떤 지방의회에서 「푸른 법」폐지안을 상정했으나 연3년째 부결됐다는 따위 기사가 곧잘 눈에띈다。법의 전통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얘기가 될까。▼그러나 실상 「푸른 법」을 버려두는 까닭은 그것이있으나 마나하기때문이다。생활의 편의·이해가 걸린 법률을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는다。예컨대 76년 콜로라도 州에서 처음 생긴 日沒法(선세트·액트)。어떤 행정제도나 機構건 입법단계에서 미리「日沒시간」을 정해 놓고、때가 되면 평가기관의감사를 거쳐 존속여부를 결정한다。위원회라면、멤버를 전원교체한다。▼말하자면 법에「조건부 폐지」를 규정하여 실속없는 행정의 타성과 낭비를 막자는 것인데、시민운동으로 전개된 이 법의 제안은 정치가 행정관료의 반대로 難産의 진통을 겪었다。결국은 州의회선거에서 법안반대파를 대거 낙선시키는캠페인이 성공한 뒤에야 日沒法은 성립됐지만、지금은 불처럼 32개州에 이方式이 번졌다。이른바「日沒의 공포」란 것이다。▼비슷한 과정을 겪은 미국법중에는、이름도 비슷한 日光法(선샤인·액트)이란 것이 있다。역시 70년대에 북처럼 번진 이 법은 「行政의 密室」에 햇빛을 비춘다는것이 그 취지다。그 실속은 각종 행정 회의를 공개하여 天日하에 드러낸다는 것。그러니까 日光法으로 법의 성안과정·집행과정을 환히 들여다보고、때가 되면 日沒法으로 그 푸른色度를 가늠해 본다는 얘기가 된다。▲사정은 다르지만、우리도 지금 법령정비 작업을 추진중이다。그 件數가 수천에 이른다지만、「臨時」아닌 임시조치법·임시특례법은 왜그리 많으며、구실을 찾을수 없는 위원회는 얼마나 되는가。이런것들은 거개가 日光을 쬔없이 생겨났고 日沒없이존속되고 있다。당분간 정부와 국회는 立法案보다는 廢法案으로 비판대목을 치러야할것 같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온스당 US $405
은：온스당 US $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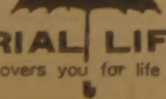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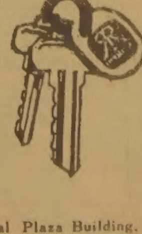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홍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
•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 신품：$99이상　• 중고품：$10이상
202 SPADINA AVE.　MRS. PARK　☎：363－6077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 시 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빈집털이」쿠데타

—「뿌리」의 본고장 西阿갬비아, 大統領 外遊中실각

65년獨立후 첫政變

보안군 主動…인구 58만5천 세네갈介入으로 事態유동적

◇실각한 大統領 찰즈英國황태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있는동안 좌익 유혈군사쿠데타로 실각한 다우다·자와라갬비아대통령이 30일 런던에 있는 갬비아·하우스앞에 서있는 모습。갬비아국기가 발코니에 걸려있다。【런던30일 AP電送=聯合】

30일 새벽 일어난 갬비아의 좌익군사쿠데타는 執權者가 부재중에 일어나곤 하는 아프리카型 군사쿠데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나의 엥크루마, 우간다의 이디아민, 이디오피아의 셀라시에가 모두 外遊중 권좌에서 쫓겨난 내력이있다.

다우다·자와라 갬비아대통령은 찰즈황태자 결혼식에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운사이에 기습을 당했다.

자와라 대통령은 영국왕실로부터 귀족칭호를 받았고 영국은 65년까지 갬비아를식민통치했다.

65년 독립후 지금까지 16년동안이나 갬비아를 통치해온 자와라 대통령은 자신의 부재중에 있을지도 모를 군사쿠데타 예방책을 세우지않았다.

왜냐하면 갬비아는 아프리카 다른나라들이 政變과 군사쿠데타로 끊임없는 혼란을 겪는 와중에서도 용케도 정치적안정을 유지해온 몇안되는 국가중의 하나였기때문이다.

이번 쿠데타는 갬비아 건국이래 최초의 군사쿠데타이다.

아프리카에서 흔히쓰는 쿠데타 예방책이란 쿠데타주동능력이있는 군부지도자를 외유에 대동해 버리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원수 외국방문에 國勢에 어울리지않는 대규모수행원이 따르는것도 이때문이다.

갬비아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한 인구58만5천의 農業小國。

우리나라 전라남도보다 약간적은 1만1천평방km가 국토의 전부다.

면적으로보나 인구로보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나라다.

65년 영국에서 독립, 영연방공화국이된 갬비아는 임기5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단원제의회를 가지고 있다.

일인당국민소득(GNP)이 1백90달러인 가난한나라 갬비아는 경제적으로 영국과 인접국가인 세네갈에 종속되어 있다.

특히 세네갈과는 3면에 국경을 접하고있고 작년에 상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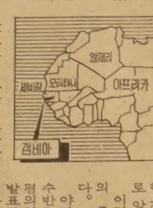
유엔은 63년 세네갈과 갬비아의 합병을 권고했으나 지하자원이 풍부한 갬비아가 이를반대,두나라관계는 경제협력에 치중하고 있다.

공용어는 영어지만 문맹률이 90%에 이른다.

인구 90%가 회교도이고 만딩고族이 주종족으로 인구40%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군은 없고 5백여명의 보안군과 6백여명의 경찰이 있을뿐이다.

이번 쿠데타는 5백여명의 보안군중 일부만이 가담한것으로 알려졌다.



땅콩이 주산물이고 인구95%가 농업에 종사하며 지하자원은 풍부하나 미개발상태다.

세네갈江양변을 따라 길이 3백20km에 걸쳐 좁고 기다랗게 뻗어있는 갬비아에는 지난 77년 미국의 흑인작가 알렉스·헤일리가 자신의 조상을 추적한 소설「뿌리」의 무대인 주푸레 마을이 있기도해 한때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가 되기도 했다.

작년에 큰한발이 닥쳐 농업생산고가 30~60%가 감소되어 실업과 인플레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제난은 이번 쿠데타의 주요원인중 하나로 꼽힌다.

야당지도자 쿠클리·산양을 수반으로하는 12人국가혁명평의회가 정권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지만 사태는 유동적이다.

런던에서 쿠데타급보에 접한 자와라 대통령이 세네갈의 디우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세네갈은 작년에 맺은 군사원조협정을 근거로 해서 병력을 갬비아수도 반줄에 공수 쿠데타 분쇄작전에 들어갔다.

세네갈군이 본격적인 쿠데타진압에 나설경우 자와라 대통령의 재집권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세네갈군과 총병력 5백명에 불과한 갬비아보안군과의 싸움은 어른과 어린이와의 싸움과 같다.

결국 세네갈군이 어느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 사태는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와라 대통령은 다수 보안군과 관리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면서 런던공항을 떠나 세네갈의 다카르로 향했다.

그는 다카르에서 가능한방법을 이용 갬비아로 돌아가서 쿠데타를 진압하겠다고밝혔다.

【李炳圭기자】

美의 새移民法에 反對여론

加·플로리다州등 南部지역서

【로스앤젤레스31日東亞=聯合】레이건美행정부는 美國에 거주하고 있는 3백50만~6백만명의 不法입국자들에게 제한이나마 관범한 합법적지위를 부여키로하는 새이민법안을 발표했으나 캘리포니아州, 플로리다州, 뉴멕시코州등 멕시코에인접한 美남부지방에서는 이같은 조치에대한 반대여론이 빗발치고있다.

캘리포니아州는 레이건 대통령의 이민법개정안이 신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하는 「2등시민그룹」을 새로 조성하는것이라고 공격했으며 플로리다州관리들은 이 법안은 플로리다 남부지방의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도움도 주지못할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뉴멕시코州출신의 공화당소속 해리슨·슈미트상원의원은 연간 멕시코人5만명에게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이 지역 농업노동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백만명정도의 여타 다른 나라의 해외이주자들에게도 임시취업비자를 발급해줘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현재로는약6백만명정도로공식집계되고있다.

세네갈、갬비아에 軍병력投入

【다카르(세네갈)30日AFP=聯合】30일 새벽 유혈군사쿠데타가일어난 아프리카 갬비아의 인접국 세네갈은 쿠데타직후갬비아에 군대를 투입, 쿠데타분쇄작전을 펴기 시작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밝혔다.

◇흐뭇한 레이건 레이건美대통령이 30일 아틀랜타에서 열린 전국州의회의원대회에서 자신의 減稅案에대한 의회의 승인에 도취되어 연설하고있는모습。【아틀랜타30일UPI電送=聯合】

佛, 5個신규 核電건설 中止

올가을 議會討議끝날때까지

環境에미치는 影響등 고려 太陽·風力에너지 開發키로

【파리30日AFP=聯合】미테랑대통령의 프랑스社會黨정부는 30일 올가을 핵발전소건설계획에 관한 議會의 토의가 끝날때까지 현재 계획중인 5개핵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核에너지의 「절제있는」이용을 지지하고있는 프랑스社會黨정부는 또한 핵발전소건설이 환경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론을 취합할 예정이며 태양에너지및 風力등 다른 에너지자원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선거직후 브리타뉴의 플로고프에 세우려던 핵발전소건설계획을 포기한바 있으나 일부 핵발전소건설계획은 생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정부의 이날 5개핵발전소건설보류결정은 건설중인 핵발전소는 완성시킬것이나 다른핵발전소의 건설계획은 토의가 끝날때까지 추진하지 않을것이라는 미테랑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中道右派의 야당은 社會黨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장래프랑스의에너지공급을위태롭게 하는것이라고 경고, 정치문제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波부녀자들의「斷食시위」 폴란드 로즈市의 부녀자들이 30일『전세계 貧國들이여 단합하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단식 시위를 벌이고 있다。【로즈30日UPI電送=聯合】

이란地震 사망자 8천명으로 늘어

【유엔本部30日AFP=聯合】지난 28일 이란 남동부 케르만省을 강타한 强震으로 희생된 사망자수는 아직 폐허속에 묻혀있는 1천명을 포함, 약 8천명이며 부상자수는 약 6만명에 달한다고 유엔 재해구호기구가 30일 밝혔다.

蘇、미테랑政府 비난

軍縮회담등서 蘇입장 無視이유로

【모스크바30日外信=聯合】소련은 30일 프랑스사회당정권이 동서군축회담및 중거리미사일배치문제에있어 소련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있다고 전례없이 신랄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출범한지 수주밖에 안되는 미테랑정권과의 불편한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클로드·세이송외상을 포함한미테랑정권의 고위관리들이 수차에 걸쳐 동서무기경쟁에 대한 책임을 소련에 전가하는한편 중거리미사일과 중성자탄의 서구배치를 지지하고있다고 비난하고 프랑스사회당정권이 유럽에서의 군사대결위험감소에 협력하기를 거절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것으로 볼수있다고 주장했다.

波、다시警告罷業기미

食糧難해결 촉구…街頭시위擴散

【바르샤바30日UPI·外信=聯合】식량등 생필품부족과 당국의 배급량감축에 항의, 폴란드 각도시에서 잇달아 시위가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폴란드제2도시 로즈와 남부벨차토프에서는 어린이들까지 참여한 부녀자들의 단식행진이 단행됐으며 이같은 시위는 당국의 해결책이 제시되지않는한 다음주초를 계기로 전국적인 경고파업사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섬유공업중심지인 로즈에서는 이날 굶주린자녀들까지 동반한 약1만명의 부녀자들이 「먹을것을 달라」고 외치며 가두시위를벌였으며 벨차토프에서도 3천여명의 부녀자들이 단식행진을강행했다.

로즈시의 자유노조는 부녀자들의 단식행진대열이「자유의 광장」에 도달하기까지수천명의 군중들이 이에합세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를주도한 자니나·코르작크는 당국에 배급개선과 식량위기를초래한 관계관리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낭독한뒤『우리는 폴란드가 유럽의 방글라데시로 전락하는것을 원치않는다』고외쳤다.

한편 바르샤바북서부 블로클라배크市의 여성주민들은 이날 집회를 갖고 당국이 식료품공급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경우 다음달 3일을 기해 단식행진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자유노조의 바르샤바지부는 로즈를 비롯한 각도시에서 단식행진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오는 5일을 기해 산하90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바르샤바지부대변인은 이 경고파업이 공장노조에서 2시간, 운수勞組에서 3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노조의 한소식통은 식량부족사태와 관련, 각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있는 항의시위가 다음주를 고비로 전국적인 파업사태로 발전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波침공 坐視않아

美下院、警告결의안

【워싱턴30日AP=聯合】美하원은 30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식량부족·물가폭등·정부의 육류배급감축계획등으로 폴란드 노조사태가 재연되고있는 가운데 美하원이 채택한 이 결의안은 미국이 폴란드 국민들에 대한 내부및 외부의 간섭에 무관심하지 않을것이며 폴란드에 대한 이같은 간섭은 東·西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다.

波議員15명 사퇴

【바르샤바30日AP=聯合】폴란드議會의원들이 30일 소집된 제15차 본회의에서 집단사퇴했다고 폴란드의 회의장이 밝혔다。이들의원들의 집단사퇴에 관한 구체적인내막은 확인되지않았는데 의회는 이들의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中共、外國人들위해 홍콩接境軍隊철수

【홍콩31日AP=聯合】중공은 廣東省深圳특별경제지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유치방문을 보다 용이하게하기위해 홍콩접경지대에 배치된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공계영자지인 홍콩스탠더드가 31일 보도했다.

메아리

北京의「擲果」

北京의 올해여름상징은 짧은 민드레스, 흰장갑, 챙이넓은모자, 5cm굽의 플래스틱 하이힐, 무릎까지오는 스타킹차림의 아가씨들 이라고 AP통신이 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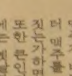
볼품없던 회색빛바지를 훨훨벗어던지고 잠자리날개같은 가벼운 스커트를입은 미녀들이 대만제 금테 선글라스를 끼고 금실자목걸이를 건채 짙은향수냄새를 뿌리면서 거리에 색깔혁명을 일으키고 있는것이 요즘의 北京거리라는 것이다.

여인들은 夜市場에 몰려가 홍콩제 최신모드의 옷을 사기에바빠 패션잡지가 1백50만부나 팔리고 天安門廣場엔 더위를 피해나온 젊은이들이연애소설책을 끼고 한여름밤의 산책을 즐긴다니 너무나도 달라진것같다.

중국에는 옛날부터 擲果라는 풍습이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擲果대신 메이트를 직접즐기는 모양이다. 젊은 처녀(姑娘)는 옛적엔 사랑하는 남자에게 프러포즈할때 과일을던져 사랑을고백했던것이다.

과일이 익는 여름이 되면 收穫祭가 열렸다. 그때 과수원에 사람들이 모이면 남자와 여자로 갈라져 여자들이 자기 의중의 남자에게 과일을 던졌다. 과일을 많은 남자는 佩玉을 보내 짝을 짓는데 詩經에도 나오는 얘기다.

潘岳은 너무나도 잘생긴 美男이라 할머니들마저 과일을 마구던져 자기가탄 차에 과일이 넘쳐흘렀고 張載는 醜男이라 나갈때마다 어린애들에게 기왓장이나 돌세례를 받아 그역시 차속이 꽉찼다고 하는 얘기는 유명하다.



擲果와 비슷한것으로 한여름에 피는 蓮꽃열매를 던져 프러포즈하는 습관도 있었다. 蓮은 남녀의 정을 나타내는 憐과 음이 통했다. 蓮子를 던지면 憐子 즉 사랑의 고백이 되었는데 지금은 憐子가 한여름밤의 메이트로 바뀌었다.

北京의 올해화제의 또 하나는 맥주부족이라고 한다. 낮 12시가 채 못돼서 맥주가 바닥이나고 이른아침부터 맥주를 사려는 행렬이 줄짓는가하면 맥주대신 黑茶가 또한 큰인기라는 것이다. 중국에는 옛날부터 氷水, 氷糖이 있어 한여름에 찬 얼음물을 즐겼다. 杜甫의 詩에도 諸公子가 美妓들을 데리고 氷水를 즐기는 것을 읊은것이 있다. 三伏에는 氷水와함께 唐나라때부터 飮茶가 유행했고 茶經을 보면 茶臼얘기가 많이나온다.

北京에서 요즘 먹는 黑茶는 발효시킨것이라고하니 우리들이 먹는 보리차와 어떻게 다른지모르겠다. 立秋가 앞으로 엿새, 솔솔부는 가을 바람이 며칠있으면 찾아올텐데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伏더위를 물리칠 시원한 냉차가 北京에서는 몹시도 그립다는 소식이다.

美에「異色冷房」등장

프린스턴大 연구팀 開發성공

겨울철 얼음을 여름에녹여 冷房이용

1백톤生産費 35弗…전기값 90%節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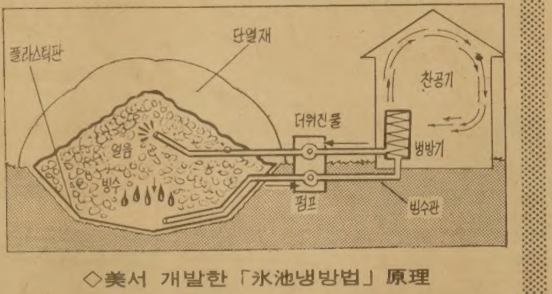
새로운 에너지源을 찾는 인간의 노력은 끝없다.

최근 전기를 사용하지않고 얼음을 이용,싼값으로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있게 하는 기발한 냉방법을 美프린스턴대학 과학자들이 개발했다.

프린스턴대학 연구팀은 추운 겨울철에 제빙기로5천톤에 달하는 얼음더미를 만들어 두었다가 여름철에 서서히 녹아내려오는 빙수를 파이프로 각 가정과 빌딩에 공급,실내온도를 시원하게 유지케하는 냉방법 연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氷池(ICEPOND)냉방법」은 뜨거운 여름 태양열로 더운물을 모아 두었다가 난방에 쓰는 태양열이용원리를 역으로 개발한 것이다.

옛날 얼음창고에 들어가면 시원했던 단순한 원리를 현대에 다시 써먹고있는 것이다.



◇美서 개발한「氷池냉방법」原理

氷池냉방은 추운 겨울날씨라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했기때문에 대단위氷池를 조성한다면 현재 에어컨디션·시스팀에 소비되는전력의90%까지절감할수있다.

氷池냉방개발은 벌써 내년부터 상업화단계에 돌입할정도로 진척되고 있다.

프루덴셜보험회사는 2천만달러를 투입,뉴저지주 프레인즈버로에 사무실건물과 6백14평에 이르는 氷池단지를 조성하고있다.

이회사는프린스턴대학의연구에40만달러를지원했다.

제빙기로 얼음을 만드는데는 전력이 사용되지만 프린스턴대학의 디어도·테일러박사가 개발한 제빙기는 추운날씨를 이용했기때문에 1백톤의 얼음을만드는데 불과 35달러(2만4천원상당)밖에 들지않는다. 또 1시간당 11톤의 얼음을 생산한다.

여름에 녹아내린 물은섭씨0도에 가까울 정도로차다. 냉방에 쓰고 회수된더워진물은 얼음을 녹이는데 재이용된다. 물은 다른목적으로도 이용이가능하다.

단열이 잘된 건물의 경우 냉방효과는 거의 만점이다.

이氷池냉방을 개발한 연구팀장 테일러박사는 로스·알라모스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현재는 핵추진로키트를 연구하고 있는 저명한 물리학자이다.

【뉴스위크誌】

오늘의 小史 <1일>

▲美,石油의 對日수출전면금지 (1941)
▲日帝한국인에징병제실시 (1943)
▲美,자유중국과 대만방위협정조인 (1950)
▲FAO 원조도입 시작 (1953)
▲중소기업은행 발족 (1961)
▲梁正模 몬트리올올림픽서 금메달획득 (1976)
▲국보위連坐制폐지를결정 (1980)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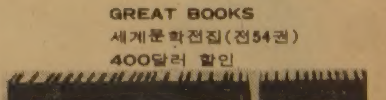
〈 금주의 스페샬〉
(Cash & Carry에 한함)
CASH & CARRY SPECIALS FOR THE PERIOD AUG. 3 to AUG. 14,'81

Coca Cola, Hi-c, Sprite	24/10 oz.Cans	Net 5.99 Case
Rowntree Reg. size Chocolate Bar	36/40¢	9.95
Smiles Chuckles Bars Reg. (Laura Secord)	36/40¢	9.75
Big League Chews	12/59¢	4.55
Tootsie Pops	100/ 5¢	3.50
Y & S 10¢ Twizzlers	48/10¢	3.05
Y & S 5¢ Twizzlers	70/ 5¢	1.95
Y & S Goodies & Nibs	24/35¢	5.59
Astro Pops	36/25¢	6.29
Cracker Jacks	36/40¢	9.99
McToffee	36/40¢	9.50
Fruitella	36/25¢	4.99
Moirs Candy	24/25¢	3.45
Lifesavers Lollipops	96/10¢	5.99
General Electric Light Bulbs (40,60,100 Watts)	12/2's	7.59

※세일즈맨모집 2명 가게에 경험 있으신분 환영
920 CALEDONIA RD. 789-7214
MR. 김
DOMINION SMALLWARES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 용 목 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한국, 野球서 준우승

태권도 鄭範秀·李東濬·鄭讚도 金

1회 월드게임

◇여고 준결승전에서 釜山 브니엘의 朴銀京이 朝大附高의 金英玉을 백핸드·스트로크로 공격하고있다.

【샌타클래라=聯】한국은31일(이하 한국시간) 美國 샌타클래라에서 열린 제1회월드게임 야구결승전에서 홈팀 美國에 4-2로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태권도 이날에 벌어진 경기에서 한국의 鄭範秀(밴텀급) 李東濬(미들급) 鄭讚(라이트헤비급)등 세선수가 각각 金메달을 차지, 이날현재 한국은 金5, 銀1개로 단연 우세를 지키고 있다.

美國야구팀(대학선발)은 외곤 한국을 방문한바있는 완의 보스버그가 산발4안타로 호투하고 7회말 맥도웰의 솔로호머등 8안타로 승리를 굳혔다.

한국은 1회초 2번 李海昌이 포볼을 얻고 3번 張孝祚가 중전 2루타를 때려 1점을 선제한 다음 2死후 5번 金在博이 좌전적시타를 때려 1점을 보탰다.

美國은 2회말 8번 패시오리의 우전 적시타등 안타 3개와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에의해 선발 崔東原이 2연속 보크를범해 2점을얻었다.

美國은 6회말 2번 무스만의 중월 2루타와 중견수 柳중일의 실책, 3번스티브스의 포볼등으로무사1, 3루를 만들고 4번 러셀의 2루수앞 땅볼로 1점을 추가했다.

崔東原은 6회까지 7안타 탈삼진9개를 기록했고 7회부터 계투한 金始眞은 7회말 맥도웰에게 솔로홈런을 맞아 1개의 안타를 허용했다.

◇전 적
◆태권도
▲밴텀급결승전
鄭範秀 판정 오스카(멕시코)
▲동미들급
李東濬 판정 로러(캐나다)
▲동라이트 헤비급
鄭讚 판정 벌리·아리오베(아이보리코스트)
◇야구
▲결승전
한국 200 000 000—2
미국 020 001 10×—4
▲홈런=맥도웰(7회말·미국)

美프로야구 파업終熄될듯

스미드會長, 합의내용 곧발표예정

【뉴욕=聯】49일째 계속되고있는 美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파업이구단주측과의 극적인 타협으로 곧종식될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파드레스의 발라드·스미드회장은31일 금일내에 선수협회와 구단주사이의 합의내용이 발표될것이라면서 샌디에이고팀은8월10일부터 다시정규 경기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또 8월9일 예정되었던 올스타게임이 클리블랜드에서 열릴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麻浦·馬山覇權다툼

男中部선 建大附中·蔚山中이

小崗盃 중고테니스

제9회 小崗盃 전국중·고 테니스대회 최종일경기가 31일 장충코트에서 열려 남고부서는 2連覇를 눈앞에 둔 麻浦高와 馬山高가, 남중부서는 建大附中과 蔚山中이 결승에 진출, 우승을 다투게 되었다. 麻浦高는 이날 大邱高에 3-0으로 완승했으며 馬山高는 사레지오高를 3-1로 격파했다.

한편 여고부에서는 淸州中앙女高가 群山영광여고를 3-1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최종일전적
▲남중부준결승
건대부중 3-0 경남옥종
울산중 3-1 마포중
▲여중부준결승
서울중앙 3-1 동래
연양서 3-1 청주
▲남고부준결승
마산 3-0 대구
마산 3-1 사레지오
▲여고부준결승
청주중앙 3-1 군산영광

朴利熙 緒戰장식

월드컵 卓球예선

【쿠알라룸푸르30日UPI=聯】한국의 朴利熙는 30일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된 월드컵탁구선수권대회 예선1회전에서 나이지리아의 에보·선데이를 2-0(21-15, 21-10)으로 물리쳐 1승을기록했다.

다른3명의 선수와함께 예선 B조에 소속된 朴은 예선에서 1명만 더이기면 8강이겨루는 준준결승 진출이 확정된다.

◇첫날전적
▲A조
郭曜華 2-0 아펠그린
그루바 2-0 핀케위치
▲B조
클람파 2-0 올로스키
朴利熙 2-0 선데이
▲C조
謝賽克 2-1 요시다까
요니에르 2-0 프랑카
▲D조
施之浩 2-1 타오
코사노빅 2-0 이통케노

自保축구팀 解體

창단11年만에

自動車保險 축구팀이 창단 11년만에 31일 해산됐다.

自保는 31일 상오10시반 본사 사장실에서 축구팀 해단식을 갖고 文正植감독 李二雨코치및 21명 선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自保는 체육회, 축구협회, 실업축구연맹에 해단 사실을 통보하고 앞으로 소규모의 운동부를 발족시킬뜻을 표명했다.

善隣商, 5회까지 20得點

15安打터뜨려 仁川體에 콜드게임勝

◇連續 태그아웃 화랑기 고교야구 善隣商—仁川體대전。2회초 1死만루찬스에서 터진 내야안타로 3루주자에이어 2루주자 朴志遠까지 홈을 노리다 태그아웃되고있다. 【釜山駐=魁】

花郞旗 고교野球

信一、明知꺾고 8強진출 6-0

慶南商은 釜山에 日沒콜드·게임승 9-3

【釜山=聯】善隣商高는 31일 釜山九德경기장에서 벌어진 제33회 화랑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4일째 2회전 경기에서 仁川體商을 5회콜드게임 20-2로 대파하고 준준결승에 진출, 木浦商과 4강을 다투게됐다.

木浦商、崔忠日 결승홈런 馬山商 제압

信一商도 明知商에 6-0으로완봉승, 8強에 올랐다.

李바오로를마운드에세운善隣商은 15안타, 10四死球와 4적실을 묶어 득점러시를 이루었다. 3번 朴魯俊은 4회초 2점 홈런등 3타수 3안타 3타점을, 5번 趙永一은 4타수 3안타 5타점을 기록했다.

한편 전날 경기서 慶南商은 4회말 13타자가 등장, 집중7안타, 4四死球로 7점을 얻어 釜山商에 9-3으로 8회일몰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木浦商은 馬山商과 투수전끝에 연장 10회말 崔忠日이 2게임째 연속 결승홈런을날려 馬山商을 2-1로 제압했다.

◇제4일전적
▲2회전
선린상 296 30—20
인천체고 010 10—2
〈5회콜드게임〉
▲홈런=朴魯俊(4회초·2점·장내·선린)
명지고 000 000 000—0
신일고 110 030 10×—6
◇제3일 2회전
마산상고 0000010100—2
목포상고 0020000001—3
▲홈런=崔忠日(10회말·목포)
목포상) 부산고 110 000 01—3
경남상고 000 710 01—9
〈8회 일몰 콜드게임〉

韓國 加에勝利

존즈컵籠球5次戰

【臺北30日AP=聯】존즈컵쟁탈국제농구대회에 참가하고있는 한국팀은 30일 결승리그 5차전에서 캐나다를 72-65로 물리쳤다.

光州商·中央8強에

대봉기高校야구、培文·培材누르고

【大邱=聯】제3회 대봉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4일째 2회전경기가 31일大邱시민운동장에서 속행, 光州商은 培文商을 1-0으로, 中央高는 培材高를 3-2로 물리치고 8강대열에 합류했다.

光州商은 馬承龍, 朴京佳의 계투로 培文商 타선을 산발 3안타로 처리하고 5회말 3번 朴頭鉉의 좌전안타에 이어 6번 全貞均의 좌월 적시2루타로 결승점을 얻었다.

서울팀끼리 맞붙은 中央高-培材高 대전은 中央高가 4회말 2死1, 2루에서 3번 金炳漢의 우전적시타로 얻은 3번째 득점을 결승점으로 지켜 3-2로 신승했다.

한편 전날경기서 慶北高는 9개의 실책을 기록한 東萊高를 7안타로 공략, 10-0으로 6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제4일전적
▲2회전
배문고 000 000 000—0
광주상 000 010 00×—1
배재고 000 100 011—2
중앙고 200 100 00×—3
◇제3일전적
▲2회전
동래고 000 000—0
경북고 441 001—10
〈6회콜드게임〉

儆新、栗谷綜과 힘겹게 비겨

종료4분전 權宰鉉동점골로

中高축구 4일째

【議政府】儆新高는 31일 議政府공설운동장에서 열린제19회 중고축구연맹전 4일째 고등부 9조경기에서 종료 4분전 權宰鉉의동점골로 栗谷綜高와 간신히 2-2로비겨 1무승부를 기록했다. 儆新은 東北高(1승)와 16강이겨루는 결승토너먼트 진출권을 놓고 맞서게된다.

10조의 洪州高(홍성)는 서울의신생팀 國際實商을 3-0으로 완파하고 1승1무승부를 기록했다.

◇제4일전적
▲고등부6조
대신고 2 (1-1, 1-0) 1 인천체고
(1승1패) (1패)
▲동10조
홍주고 3 (2-0, 1-0) 0 국제실고
(1승1무) (1패)
▲동9조
경신고 2 (0-1, 2-1) 2 율곡종고
(1무) (1무1패)
◇제3일전적
▲고등부1조
숭실고 4 (2-0, 2-0) 0 천안농고
(1승) (1패)
▲동15조
상주고 3 (3-0, 0-0) 0 청주상고
(1승) (2패)

'81 鳳凰大旗 는 고교로

전국49팀 強訓현장 올해의 스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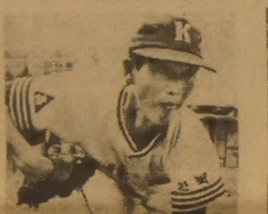
大邱·慶北

慶北高의 成埈·朴春錫·李常薰마운드 莫強자랑

大邱 姜起雄·裵孝旭에 期待

大邱商 李龍洙·金楨壽등을 내세워

聖光 戰力미지수 浦鐵工 사기충천



◇慶北高 成埈

◇大邱高 姜起雄

◇慶北高 崔武永

◇大邱高 裵孝旭

고교야구史에 기록된 大邱勢의 눈부신 성장은 신화에 가깝다. 최근 10년간 慶北高와 大邱商高, 두명문고에 의해 이루어진 전국대회우승 회수는 어느지방도 따르지 못한다. 우승팀이 10년간 정복한 대회수는 자그마치18개. 慶南高, 釜山商高, 釜山高의 釜山勢가 13개대회, 18개팀을 가진 서울勢가 겨우 10개대회를 석권, 大邱勢에 뒤지고있다.

금년시즌 역시 慶北高를 앞세운 大邱勢의 정상도전은 만만치 않다. 첫대회인 대통령盃서 예선탈락한 慶北高는 청룡기대회서 저력을 발휘, 67년 林信根의 전성기이후 대회 6번째우승을 차지했다.

慶北高의 강점은 成埈·朴春錫·李常薰으로 구축된 막강한 마운드. 우완에이스 成埈(3년)은 지난해부터 침착하고 무거운 구질의 피칭으로 주목을 끌었으며 금년들어 슬라이더를 위주로한 컨트롤과 두뇌피칭으로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같은 3년생인 朴春錫은 드롭·커브를 주무기로 체인지·오브·페이스에 능해 成埈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있다.

慶北高는 타력역시 우승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崔武永(3년·중견수) 申成哲(3년·포수) 洪淳浩(3년·3루수)가 호쾌한 배팅으로 클린업·트리오를 이루고있다. 청룡기대회3 [illegible] (3년)의 배트도 날카롭다.

投打에 고루 잘다듬어진 전력으로 具守甲감독은 3번째 鳳凰大旗제패를 노리고있다.

大邱高의 전력만은 어느팀도 만만히 넘볼수없을만큼 알차다. 세계청소년대회대표로 활약했던 裵孝旭과 李成根, 林淳太로 이루어진 타선은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가졌다. 청소년대표였던 1번타자 姜起雄(2년)은 [illegible] 고 다짐한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成基泳감독은 『팀타율3할3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마운드가 약하지만 방망이로 승부를 내겠다』고 다짐한다.

[illegible] 高를 차례로 다운시켜놓고서도 서울勢의 벽에 물러서면 저력은 소처럼 제기량을 펴보이지 못하고 물러나곤 했다. 大邱高는 금년 첫대회인 대통령盃서도 4강에서 발이 묶였지만 점차 선수들의 팀웍을 키워 鳳凰大旗정상을 향해 [illegible] 키우고있다.

오랜 전통, 화려한 명성의 大邱商高는 최근 大邱안곽에서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내내 大邱高, 慶北高에 눌려 大邱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鳳凰大旗에서 저력을 발휘, 3위로 뛰어 올랐다. 금년에는 대통령盃에 나왔으나 2회전서 서울의 信一高에 6-5로 분패, 귀향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듬기 시작한 3년생트리오 李拓基, 馬洙鎬, 金動基의 마운드가 점차 안정을 찾고 李龍洙(3년·좌익수) 金楨壽(2년·우익수) 金動基의 장타력이 기대를걸만하다. 鳳凰大旗서는 대진운도 비교적 좋은편이어서 金鍾佑감독은 지난해 이상의 전과를 노리고있다.

올해 창단된 浦鐵工高와 大邱聖光高의 전력은 아직 미지수. 浦鐵工高는 지역대회경기서 비교적 좋은성적을올려 鳳凰大旗 상위입상을 바라고있으나 1년생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큰기대는 갖기어려운형편이다.

특히 浦項製鐵회사의 타고 [illegible] 고교졸업후 기능사 자격을부여받는 특혜로 선수들의 사기가 충천해 단시일내의 정상진입이 기대되고있다.

글 方錫舜기자
사진 白炯寅기자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女性學강좌」마련

梨大 여성연구소

梨大한국여성연구소는 서울시내 중고교 여교사40명을 대상으로 3일~6일(상오9시~12시) 梨大 진관 홀에서 女性學강좌를 마련한다. 교육내용은 「여성학의 이념과 여성교육의 입무」「교육의 사회화의 기능」「여성의 지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여성의 지위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여성의 새로운 自己理解」등. 참가신청은 ☎615-1345.

하와이·캘큘 講習

꽃꽂이 智藝院

꽃꽂이학원 智藝院(원장 李제자)은 가정주부들을 위한 하와이·캘큘무료강습회를 8월 한달간 서울中區茶林洞151의124 國院에서 실시한다. 수강마감은 오는 5일까지 (문의는☎5117).

國際주산경기 大會

서울·釜山 두곳서

국제계산기능올림픽 제5회국제주산경기대회가 2일 서울京畿商高와 4일 釜山東州女商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선수들이 참가, 실력을 겨룬다.

국제주산연합회는 대회에 앞서 1일하오7시 서울 국제호텔에서 제7회 국제주산회의를 갖는다.

韓國·美AIA비켜

親善농구

【馬山=聯】美國AIA여자농구팀초청 韓美친선 농구대회 3차전이 30일밤 馬山慶南종합체육관서 속개, 韓國여자실업선발은 AIA와 70-70으로 비겼다. 이로써 美AIA팀은 내한전적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실업선발은 전반18분까지 崔承姬 崔愛英 朴然恩트리오의 맹활약으로 30-24로 리드했으나 AIA의 장신쉬린, 메이에게 연속 골밑슛을 허용, 32-32로 전반을 끝냈다.

후반에 들어서도 양팀은 4차례의 타이를 이루며 공방전을 펼치다가 선발팀이 경기종료 20초를남기고 李愛子의 골밑슛으로 70-68로 리드했으나 경기종료와함께 메인에게 골밑슛을허용, 70-70으로 비겼다. 최종 4차전은 1일하오6시반 장충체육관서 열린다.

주간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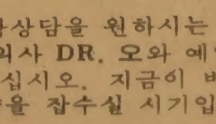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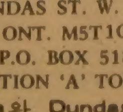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薬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 북동 코너)

*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8858~9

광고는
좋은 뉴스입니다.

광고는 메이커로 하여금
소비자를 위해 경쟁하게 합니다.
광고는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오도록 합니다.
새로운 상품의 경쟁은
기술혁신을 낳게 하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옵니다.
민주복지사회는 곧
광고가 좋은 뉴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S LTD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유지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兵役의무자 海外여행 擴大

내달부터 科技院生등 特例보충역 留學가능

身檢미필 大學生등 유학 82년부터 許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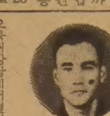
병무청은 정부의 국민여행 자율화 방침에 따라 8월1일부터 ... 미필보충역의 해외여행을 ...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허가하며, 외교관이나 언론기관특파원, 기업체의 해외지사근무자등 해외장기체류자의 자녀들이 징병검사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부모를 만나러 여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19세이하에만 허용하던것을 20세이상도 티가토록하는등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병무청은 이번조치로 한국과학기술원생, 군수및 기간산업종사자등 특례보충역편입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허가해주지않던 학술연구를 위한 국비유학, 예능·체육특기자 해외유학길을 터주었으며 징병검사를 받지않은 고졸자, 대학및 대학원생의 해외유학은 82년3월1일부터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병역의무자의 여행허가업무를 국제회의및 경기, 선원의승선, 전가족 해외이주등을 제외하고는 매달11일과26일 두차례만 심의위원회를열어 처리하던것을 8월1일부터는 방학기간학생해외연수, 보충역의 해외여행, 공무원의 출장등도 매일접수, 당일처리토록했으며 병역의무자들이 여행허가 기간중 일시귀국했다가 재출국할때해오던 출·귀국신고도 폐지키로했다.

한편 병무청은 해외여행범위확대조치와 함께 늘어날지도 모르는 허가기간내 미귀국자 발생에 대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역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미귀국의무자본인은 병역법위반 등 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 4조(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따라 고발은 물론 귀국후에도 40세까지 국내취업등 사회활동을 제한받게되며 ▲친권자와 보증인은 의무자가 돌아올때까지 공직임용, 해외여행, 은행융자, 정부의 인·허가및 관허업체 근무를 제한받도록 하며 ▲2명의 보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릴방침이다.

陸軍大어제졸업식 大統領賞嚴恒錫소령



81년도 육군대학 정규과정 졸업식이 31일 상오 육대강당에서 열려 嚴恒錫소령(사진)이 대통령상을, 林周鎬소령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는 미국과 자유중국, 인도네시아등 우방국장교 5명이 소정의교육과정을 마치고 ○○○명의 졸업생대열에 끼어 이채를 띠었다.

KAL 리비아航路 18일부터 週1~2回 運航

아프리카의관문 리비아와 우리나라의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되어 아프리카진출에 큰 도움을 주게됐다. 30일항공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항공(KAL)은 오는 8월18일부터 DC10, 또는 보잉747SP등 대형여객기를 리비아의수도 트리폴리노선에 투입, 주1, 2회씩 운항한다.

한국노선은 현재 취항중인 바레인↓리비아노선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颱風濟州통과 내륙엔 영향없을듯

중앙관상대는 31일 제10호 태풍 오그던(OGDEN)이 이날 하오3시현재 濟州동남쪽 1백㎞해상(북위34도15분, 동경1백27도55분)에 있으며 매시 30㎞의 속도로 북서진, 이날 하오6시께는 濟州북단을 지나 1일 새벽 서해 남부해상으로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심기압이 9백90밀리바(C급)인 오그던의 최대풍속은 20m로 폭풍우를 동반하고있는데 우리나라 내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자 兵役法문답

當該年 身檢대상者는 不許
ROTC 軍醫官후보생 여행制限
徵檢미필자 기술硏修 가능

—징집연기를 받고있는 22세 대학생이다. ... 해외여행을 하려니까 가능한가.

▲여행이 가능하다. ...

—징집연기를 받은 21세 대학생인데 총·학장추천만 받으면 올해안에 해외유학을 ... 허가된다.

—징병검사 미필자가 ... 3월1일부터 가능토록 되어있다.

▲병역특례보충역의 경우 ... 편입되어 ... 국비유학생으로 ...

▲붙가능하다. ROTC, RNTC(하사관후보생) 군의(軍醫)·법무(法務)·군종(軍宗)장교후보생등은 계속 해외여행의 제한을 받는다.

▲전문대나 4년제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반학생은 ... 징병검사대상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휴학중인 경우도 불가능하다.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예체능특기자로 해외유학은 가능한지?

▲해외유학 병역의무자의 체재기간 연장은 나이, 학교및 졸업연도, 재학중인 학교등을 감안하여 2년범위내에서 허가가 가능하지만 병역법시행령22조(제한연령)에 따라 대학생은 24세, 대학원생은 26세까지만 학제(學制)의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졸업을해야할경우 추가해 연장도 가능토록되어있다.

【申鉉鈺기자】

나의이력서 윤치영 ⑨

〈題字·尹致暎〉

矩堂 兄弟

"敎育으로 大韓帝國 바로잡자"앞장
두분 다 兄과 親交…尊敬하며 지내

중앙학교시절을 回想할때 韓末의 志士요 선각자인 兪吉濬 兪星濬형제를 빼놓을수가없다. 두분은 모두 직접 政壇에 서지는 않았지만 國運이 대해 기울어가는 대한제국을 바로 일으키는 길은 교육의 百年大計밖에 없다고 보고 차례로 학교설립과 운영에 발벗고 나섰다.

학교일에는 季氏인 兪星濬선생이 중앙학교前身 畿湖학교의 3代교장을 지냈고 나중 중앙학교로 통합된후에는 兪吉濬선생이 5代(通算)교장을 맡았다.

내가 중앙에 입학했을때는 나의 맏형인 尹致旿가 교장때로 星濬선생은 이미 학교일에 손을뗐지만 이따금 형님을 보러 집에 오셨기때문에 자주뵈었다. 吉濬선생은 맏형에 이어 1913년11월21일 교장에 취임한후 내가 在學중 돌아가실때까지 늘 가까이서 뵐수가 있었다.

矩堂인 兪吉濬선생은 1856년(哲宗7년)서울桂洞에서 출생, 漢學을 배웠다.

22세인 1878년 우리나라 日本留學生의 嚆矢로 渡日, 慶應義塾에 입학했고 졸업후 정부의 報聘使節의 隨員으로 渡美한길에 보스턴대학에 3년간 修學하고 歐洲각국을 돌아본뒤 귀국함으로써 미국유학생 제1號가 됐다. 선생이 귀국할때는 甲申政變직후여서 開化黨員으로 몰려 韓圭卨의 私邸에 이어 白巖洞翠雲亭에 6년동안 사실상 軟禁되었다. 이기간동안 高宗勅命에의해 외교문서를 번역하는한편 嚴鉉를통해 우리나라최초의 國漢文混用體의 海外기행문인 유명한 西遊見聞錄을 썼다.

甲午更張후 內閣書記官長으로 개혁에 참여하고 日本에 報聘使(義和君)로 다녀와 金弘集내각의 內部大臣이 되었다가 俄館播遷후 11年간 日本에 亡命했다.

선생이 귀국했을때는 이미 日帝의 統監정치가 실시되어 민간교육과 實業진흥에 전념, 私財를 털어 民團, 皇城府民會, 興士團을 만들었다. 이동안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文法책인 「大韓文典」「勞動夜學讀本」「矩堂詩鈔」를 저술했고 「英法露土諸國哥利米亞戰史」(크리미아戰爭史) 「普魯士國厚禮斗益大王七年戰史」등을 번역했다. 일본정부는 1910년 合邦때 선생에게 爵位를 수여했으나 끝내 固辭, 거부했다.

중앙교장시절 교사나 학생모두가 선생을 하늘처럼 존경했다. 한복차림에 근엄한 표정의 선생은 우리들이 인사할때마다 미소를 지으시며 「공부 열심히 해야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형님을 뵈러 입학전부터 선생을 뵈었고 재학중에도 자주 高宗이 下賜한 한강건너 노량진私邸를 방문, 日美유학얘기를 들었다. 1914년7월16일 59세를 一期로 別世하셨을때는 교사와 학생모두가 울었다.

矩堂의 4살아우인 兪星濬선생(號兢齋)도 형님의 인도로 비슷한 길을 걸었다. 1880년 渡日, 明治대학법과를 졸업하고 官界에 투신했다가 甲申政變으로 일본에 망명했다. 1899년 赦還되어 度支部主事, 內務部協辦, 지방국장, 內閣법제국장등을 역임하는 한편 교육진흥을 위해 대한국민교육회를 창립하기도했다.

1901년(光武5년) 소위 日本留學生 革命血約사건으로 정부顚覆을 책동했다하여 李商在, 李承晩선생과 獄苦를 치렀다. 그는 獄中에서 기독교에 歸依, 나중 독실한 신자로 奎齋형님(致旿)이 세운 安東교회의 장로를 지내셨다. 1909년 畿湖학교교장을 맡은이래 1년후 중앙학교통합에 많은 공을 쌓았고 후년에는 두차례에 걸쳐 普成專門학교교장을 지내시다가 1934년 75세로 돌아가셨다.

兢齋선생은 형님에비해 체구가작았으나 작은고추가 맵다는 말대로 판단과 慧眼과 機智는 뛰어났다. 우리집에 오시어 형님들과 환담하실때 博學多識과 談論風發로 좌중을 휘어잡곤했다. 언제 어느장소이건 교육立國을 외치셨던 선생은 학교와 교회일이라면 아무리 궂은일이라도 마다않고 앞장 서시곤했다.

선생에관해서는 逸話가 적지않다. 그중하나가 「소금얘기」다.

선생이 일찌기 度支部主事때 三南지방에 現物稅징수를 독려하기위해 장기출장을 나가게됐다. 이출장은 火輪船을 타고 三南各港에 寄港하면서 稅穀을 수송하는것. 1배론設의 火輪船은 당시 우리정부의 촉탁인 穆麟德(묄렌도르프·獨逸人)의 주선으로 淸國에서 구입한것으로 선장 기관장 선원들은 모두 영국인을 고용했다. 乘船한 첫날 선장이 초청한 식탁에 앉고보니 조미료같은 그릇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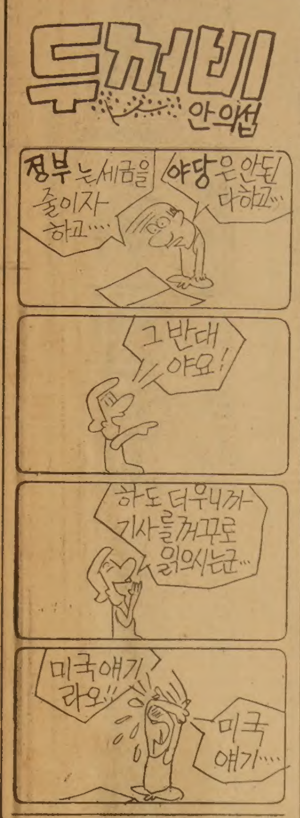
선생은 그중 흰가루를 설탕으로 알고 한숟갈 입에넣으니 「아차!」 소금이 아닌가. 內心 당황했지만 한국 고위관리의 체면때문에 그냥 꿀꺽 삼켰다. 이에 놀란 英人선장이 「어째서 짠소금을 많이먹느냐」고 묻자 선생은 태연히 웃으며 「소금은 滯症에 약이라서 식사직전에는 이렇게 늘 한숟갈씩 먹는다」고 대답했다.

이에 선장은 「나역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는중 아무리 약을먹어도 낫지않는데 이제 仙藥을 알게됐다」며 역시 소금 한숟갈을 듬뿍 먹지않는가. 이후 두사람은 수개월간의 출장기간중 每식사전에 짠것을 참으며 소금을 常食하는 고통을 겪은것이다.

훗날 兢齋선생은 「선장에게는 미안하지만 국제적 체면때문에 실토할수가 없었다」고 웃으시면서 「조그만 예지만 이런실수를 범하지않기위해서도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해 海外文物을 습득해서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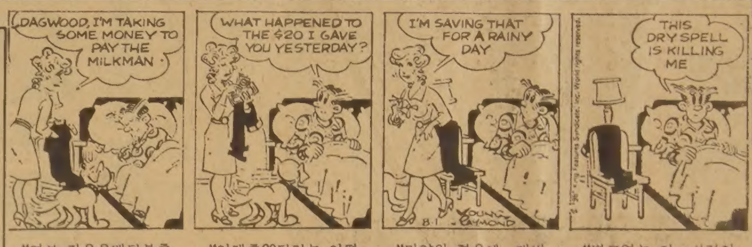
◇韓末志士로 우리나라 近代교육의 선구자였던 矩堂 兪吉濬(上) 兢齋 兪星濬형제

두꺼비 안의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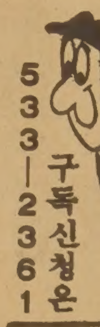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 저우유배달부줄 돈좀가져가요" "어제준20달러는 어떻게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축하는거예요" "별고없는 이 시절이 나를 죽이는구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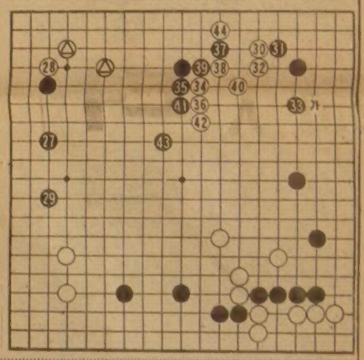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533—2361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第4局 第4譜 30~44 (각5시간)



中盤戰 어려운 고비

李군. 이바둑이 두어진 7월11일은 충북지방에 홍수가 났지만 이곳淸溪는 종일 짙은구름이 내려깔려서 장마이슬비를 뿌릴정도였는데 그 비가 멎기만하면 찬 바 가까운 이곳저곳에서 꾀꼬리들이 짝을부르는 노래소리가 서울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며 군.

그렇지만 오직 바둑판에만 넋을 잃은 대국자들에겐 하나도 들리지않는 모양이고 판의양상은 더욱더 가열돼 가는중.

李군. 자네는 자칫 白30따위로「가」의 곳에 걸칠지 모르지만 이건 물론 어불성설. 당연히 상대의 약한쪽에 걸치도록 명심할 일일세(실례).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서 익혀둘 일이 있지. 즉 黑31, 33의 상용수단을 白34로 어깨를짚고 중앙에 진출한 수법인데 이건 후학을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네.

만약△표쪽이 黑일경우에 본보와같이 黑35, 41, 43등으로세를 만들게하면 심하게 말해서 이것으로 바둑은 끝장이 날판이네. 그러나 이경우는 黑43까지 黑을 허세로 만드는자리에 먼저가 있기 때문에 白은 주저하지않고 두어버린것세. 그러니까 白34를 치러38자리에 두는것보다 본보가 常型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는 얘기가되네.

다음 국후에는 黑37은 앞두어도 무방했다는중론. 왜냐면, 黑세속에 뛰어든 白일단이 계제에 白38이하 44까지로 거의완성한 꼴이기 때문일세. 이다음이 黑으로서 어려운고비인데 과연 어디에 둘는지. 【一九】

流星의 賦 <145>

李炳注作 李友範畵

亡兆의 日月 ㉛

이대순의 상소에 대한 선조의 대답엔 박력(迫力)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홍과 의가 분발하고 있으니 미사간 유골이한(宋死喪陳昔已寒)이로다. 어찌하면 너 같은 인물을 얻어 조정에 둘 수 없을까』

「미사간유골이한」이란 표현은 격렬하다. 「간신들이 죽기도 전에 그 뼈가 차가와질 지경이로구나」하는 뜻이며 선조는 분명히 송응개등을 간신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이에게 대한 반대상소가 끊어질 리 없었다. 경상도의 유생 하항(河沆)이 이이의 다섯가지 죄목을 들어 상소했다.

『그 첫째는 이제신(李濟臣)을 구한것이요, 둘째는 세금(稅金)을 더하려고 한 것이요, 세째는 전적(田籍)을 측량하려 한 것이요, 네째는 송한필(宋翰弼)의 신주를 쓴 것이요, 다섯째는 자기의 죄를 변명한 것이요』

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문중엔 음(陰)이란 글자의 해석을 이이가 잘못했다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임금의 비답은 『공사(公事)에 관한 것 가운데도 너의 말은 사실과 많이 어긋나 있고, 이이가 「음」자를 잘못해석했다고 죄를 참으려 하는데, 도대체 나라의 학일이 글자 하나를 해석하는데 있단 말인가』

이무렵, 전일 이이, 성혼을 변명하는 상소를 변바 있는 유공신(柳拱辰) 등이 송응개의 조카 한연(韓㦕)의 훼방으로 과거(科擧)를 못보게 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임금은 그 진상을 따져 관련자들을 엄벌하곤 드디어 창을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마음을 굳혀 선정전(宣政殿)에 이품(二品)이상을 불러 모아놓고 전교 한 바 있었다. 이것은 폭탄선언이나 다를 바 없었다.

임금이 먼저 물었다.

『조정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심의겸, 김효원 때문이다. 이 사람들을 멀리 귀향 보내고자 하는데 모두들 생각이 어떤가』

이에대해 좌우의 신하들은

『당초 당파가 나눠진것은 그 두사람 때문이었음니다만 지금 그들은 모두 외직에 나가있어 조정일에 간섭하지 않으니 죄를 줄것이 없읍니다』

張吉山 (1621)

黃晳暎作 崔然石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81)

가 있었겠지요?』

김기가 답하였다.

『사선골과 탑고개는 유민과 재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마을이었고, 산채 식구들이 더불어 살았소. 마을사람들은 월정사와 산채를 뻔질나게 왕래하였소. 즉, 산채로 가는 소식이며 되로를 막고 끊으려던 것이지요. 일테면 사지를 잘라놓은 셈이 옳시다. 이제와서 장두령을 비롯한 저희들의 생각이지만, 일정한 산속에 산채를 두고 식솔들이 그 근방에 살며 마을을 이루는것은 마치, 머리를 독사의 구멍 앞에 들이대고 누운것과도 갈소. 그리고 발목에 철환을 매문 죄수처럼 옴치고 뛸수가 없지요. 여연동네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살게하든지, 아니면 산 속에 두세집씩 흩어져 살게해야됩니다. 산채는 산지사방으로 맥이 닿은 큰 산줄기의 요소에 나누어 두어야 할게요. 내가지난번에된목이골에 올라 뒤늦게 지세를 살

깨어진 옹기 조각과 돌멩이 뿐이었으나, 모두 죽기를 한하고 싸웠지요. 탑고개 아닌 다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원한이 쌓이면 저렇듯 강한 힘이 나오니, 우리는 사방에서 백성의 맺힌 바를 소상히 살펴서 그들의 힘을 밀어주고 그들을 끌고 나가면, 마치 돛에 거센 바람을 받아 노도 삿대도 없이 큰 바다를 건너는배와도 같을 것입니다』

김기가 다시 덧붙였다.

『그와 같은 일은 벌써 해서 도처의 활빈행에서도 겪었소. 굶주린 황민들의 뒤를 따라 다니기만 하여도 토호들의 창고는 저절로 열렸지요. 활빈행에서의 주된 힘은 오직 굶주린 사람들 자신이어야합니다. 우리는 다만 약간의 기량으로 그들의 행동이 훨씬 쉽고 적극적으로 되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조읍포에서도 조세창을 털어낸것은 다름아닌 백성들 자신이었소』

『구월산 식구들이 혼자서 능히 관군 한오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방포술에는 아무런 대처가 없었소. 또한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하여는 전혀 마음을 놓고 있었지요. 물론관군의 기습이 닥쳐왔다는 소문을 갈라, 갈래갈래 미리 정탐하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관군이 한번 거병하려면 군비와 인마의 동원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해서 일대가 떠들썩할 것이며, 이쪽에서는 자연히 알게될 것으로만 여겼지요. 그러나 토포장 최모는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어 조련받는 감영군사들 자신도 그들이 범사냥에 나가는것으로 알았소이다』

설유징이 다시 물었다.

『관군이 사선골과 탑고개를 먼저 급습해야할 이유는 ...』

『나중에들어서 알았으나, 우리가 배운게 있읍니다. 탑고개에서 관군은 마을사람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소. 비록 병장기도 없이

『구월산 식구들의 의견이 ... 』 ... 얹은 저와 같은 ... 되니, 구월산이 마치 찬 ...

『그들이 지난날 잘못을 ... 서 ... 이에대한 좌우의 대답은 ... 하고 주장했다.

임금은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정철의 의견에 좇았다. 그리하여 송응개는 회령(會寧)으로, 박근원은 강계(江界)로, 허봉은 종성(鍾城)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그런데 종성에선 그때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므로 허봉의 유배지(流配地)를 갑산(甲山)으로 바꿨다.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경력: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 제4회 전국중·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이화여대 주최)
● 배화여중·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만5세 이상 남·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